



“세계적 네트워크 구축해 동문 단합 이루자”

乙未年 신년교례회서
새해 덕담 주고받아



신년교례회에 참석한 주요 인사들이 시루떡 나눔 행사를 가졌다. 좌로부터 鄭鍾旭·玄明官·玄敬大부회장, 李仁浩자문위원, 姜信浩고문, 李吉女부회장, 모교 成樂寅총장, 徐廷和회장, 鄭義和부회장, 林光洙명예회장, 權彝赫고문, 裴仁俊·洪性大·崔守鉉부회장



지난 1월 9일 서울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열린 신년교례회에 동문 1천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관련기사 4~5면>

관악출추

하버드대는 세계적 전략챔피언 양성으로 유명하다. 경쟁전략 창시자인 마이클 포터는 미국의 기업 경쟁력을, '과워' 문제 권위자인 조셉 나이는 미국의 외교정책을 각각 세계 최고 수준으로 만드는 데 공헌한다. 현 국제질서의 판을 짠다는 헨리 키신저는 미국 주도의 세계질서 형성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 이외에도 하버드產 전략챔피언이 된 하버드대 교수는 많다.

조셉 나이는 국력이 군사력, 경제력, 소프트파워 및 사이버파워의 네이프로 전쟁도 군사전쟁, 경제전쟁, 소프트파워전쟁 및 사이버전쟁의 네이라고 한다. 세계 많은 나라는 현재 군사전쟁은 아니라도 다른 세 가지 전쟁은 계속하

고 있으므로 모두 전시라는 것이다. 전쟁은 전략으로 하는 것이므로 각종 전쟁이 치열할수록 전략의 중요성도 그만큼 크게 된다. 전략으로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1994년 이후 12명이나 된다는 사실이 이를 잘 말한다.

소련이 미국에 패한 다음 나라가 해체된 것이나, 일본이 미국과의 경제전쟁에서 패하고 거품경제가 터진 다음 20

하버드처럼 전략챔피언 양성을!

년 넘게 어려움을 겪은 것은 전략 부재 때문이다. 일본 나카소네 야스히로 前수상은 저서 '21세기 일본의 국가전략'에서 전략의 형성은 국가의 사활이 걸린 중요한 문제인데, 일본에는 전략이 없는 것이 큰 문제라고 한다. 자주적인 국가전략 수립을 호소하고 있다. 그는 국가전략 인재육성을 위한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같은 교육기관의 설립도 강

조한다. 전략연구를 '아카데미즘'에 반한다는 학자들 생각도 바뀌어야 한다고 한다. 이는 한국의 경우에도 그대로 맞는 말이 아닌가 한다.

4대 강국에 둘러싸인 한국은 4대 전쟁을 모두 세계에서 아파 가장 치열하게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런 전쟁은 결국 각국의 전략챔피언들 간의 전쟁이다. 한국의 급선무는 하버드처럼 세계 최고수준의 전략챔피언을 양성하는 것이다. 서울대의 역할이 중요하다.

좀 다른 예로 KPGA 로고송은 '세계 넘버원'으로 시작한다. 여자골프 선수들은 이미 세계 넘버원이 됐다. 국가 전략가들이 세계 넘버원이 되면 온 국민이 잘 살 수 있다. 기업인들도 일류 여자골프선수 한 명 양성하는 돈이나 정성이면 국가전략 챔피언을 다수 양성할 수 있음을 알고 동참하면 어떨까 한다. (宋丙洛 모교 경제학부 명예교수·자유와창의교육원장·본보 논설위원)

느리나무광장

제 직함이 ‘한국신문협회 사무총장’입니다. 2014년 3월 동아일보를 퇴직하고 신문협회로 옮기면서 얻은 자리입니다. 사무총장, 너무 거창한 직함이어서 처음 제의 받았을 때 살짝 놀랐습니다. ‘하는 일은 조그만 협회의 사무국 책임자 역할일 텐데 감투 이름이 참 크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와 보니 저를 포함해 15명이 일하는, 그리 크지 않은 조직이었습니다.

며칠 후 명함을 받고는 더 놀랐습니다. 영어로 Secretary General이었습니다. 이런 유엔 사무총장을 부를 때도 쓰지만 사회주의 국가에서 공산당의 서기장 또는 총서기를 부를 때도 쓰는 말 아니겠습니까? 브레주네프, 흐루시초프, 마오쩌둥, 후진타오 등의 영문 직책이 Secretary General입니다.

궁금해 영어사전에서 Secretary General을 찾아봤습니다. ‘대규모 국제 조직 또는 정치 조직의 사무총장’이라고 번역했더군요. 아, 민망...

우리는 직함을 좀 크게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형적

인 것이 ‘대통령’입니다. 우리가 맨날 대통령, 대통령 하면서 익숙하게 부르기는 하지만 곰곰히 따져보면 統領이라는 말만해도 그 의미가 엄청납니다. 통. 령. 통할하고 영도하는 직분이라... 각료의 대표라는 수상, 대신 중의 수장이라는 총리대신 등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이에 비해 대통령 제도의 창시국인 미국식 표현 ‘The President’는 너무 겸손한 語源을 가졌지요. 회의를 주재하는 사람이라는. 하지만 한국에서는 통령이라는 말로 도성에 안 차 대-통령이라고 부릅니다. 자연인에게 이

거창한 직함, 겸손한 직함

許承虎
(경영79-83)
한국신문협회 사무총장
본보 논설위원



런 직함을?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직분에 맡겨진 일을 만족스럽게 해내는 분이 드문 것일까요?

이런 생각을 갖고 주변을 살펴보니 사무총장이라는 직함을 쓰는 단체가 꽤 있더군요. 사무장에서 시작해 사무국장으로, 또 전무 또는 사무총장으로 직급 인플레가 이뤄진 것입니다. 회장이 비상근하는 경우 상근부회장이라는 직함도 많이들 씁니다.

반면 직함을 겸손하게 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30년 가까이 기자로 있어서인지, 이런 경향이 가장 강한 직군이 기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기자들끼리 모임을 만들 때면 대개 대표자로 ‘간사’를 뽑습니다. 공채 27기 동기회 간사, 노동조합 설립준비위 간사 이런 식입니다. 사무의 줄기 노릇을 하라는 뜻이죠. 중견 언론인 모임으로 국내 최고의 역사와 권위를 자랑하는 언론단체 관훈클럽에서는 대표자의 직함이 ‘총무’일 뿐입니다. 얼마 전 관훈클럽 62대 총무가 선출됐습니다. 제 눈엔 이런 칭호가 참 좋습니다.

아, 그렇다고 기자들의 본성이 특별히 겸손하고 온유하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그저 직함을 그렇게 부른다는 것일 뿐, 그들의 성품이나 행태와는 아무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하하~.

관악시단

人間너머에 또人間이

許有(경제56-60)
前한국투자증권 사장·시인

追憶이란 무슨 名品짜리라도 되는지
걸치고 달고 다니면 저절로 추억스럽게 보이지.

思春期 무렵,
애끓는 추억 하나쯤 없다면 가련한 신세,
그 신세를 면하려면 각별히 힘쓸 일이다.
힘써서 追憶의 材料를 채길 일이다.

행세하는 사람 치고
追憶으로 인해 슬픈 듯 보이지 않는 사람 없고,
追憶으로 인해 슬픈 듯 보이지 않아도
실은 그리 슬픈 처지가 아닌 사람 없다.

오로지 人間 너머에
또人間이 있을 뿐이다.

동문칼럼

노화고령사회연구소는 서울대학교의 모든 학문분야가 참여하는 다학제간 연구를 통해 한국사회가 직면한 노인 및 고령사회 문제에 대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해당분야의 학술적 연구를 선도해 효과적으로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고자 2006년 10월 20일에 설립됐다. 필자가 의과대학 朴相哲교수, 사회과학대학 崔聖載교수의 뒤를 이어 3번째 소장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사회는 평균수명의 연장에 따른 인구 고령화에 의해 노인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며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건강하고 행복한 고령사회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이미 발생한 문제는 물론이고, 앞으로 예측되는 문제를 밝혀내야 한다. 우리 연구소의 가장 큰 장점이자 역할은 이런 고령사회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정책과 기술을 개발해내고 있으며,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행복한 고령사회를 리드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신의 연구와 같은 연구소 본연의 역할 외에도 우리 연구소가 가지는 큰 장점 중 하나는 일반인

5기 졸업생을 배출했다. 또한 일반인들에게 기초 건강교육 및 과학적인 의학상식을 전달함으로써 국민 보건교육을 향상시키고, 성인병에 대한 예방책을 알려주는 미니메드스쿨을 3개월 과정으로 운영해 현재 11기 졸업생을 배출했다.

우리 연구소는 지역사회와의 교류도 강화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대표적인 장수지역인 순창군과 서울대학교가 MOU를 체결해 순창군에 건립된 서울대 노화고령사회연구소 순창센터를 2011년부터 5년간 위탁 운영하고 있다. 노화고령사회연구소는 학교 울타리를 넘어 심각하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농촌 지역의 현장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뛰어들어 주민들의 개인적인 건강장수와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지역



鄭振鎬
(의학78-84)
모교 피부과학교실 교수
노화고령사회연구소장

의 사회·문화·경제적 활성화 및 성장을 위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연구소로 발전하고 있다.

우리 노화고령사회연구소는 서울대학교의 다양한 학문분야를 전공하고 있는 교수님들이 참여하는 연구소로서 각 학문분야에서 예측할 수 있는 고령사회 문제를 다학문적 접근을 통해 해결하고 있다. 사회, 경제, 문화 등의 사회문제 뿐만 아니라, 노화현상의 생물학적 기초연구를 통해 건강한 노화를 유지할 수 있는 약물, 건강기능식품 개발을 위한 연구팀을 운영하고 있다.

필자는 피부과를 전공하는 임상

저출산·고령화 현상 해결이 최우선 과제

에 대한 교육사업 확대를 통해 국민 스스로가 능동적으로 고령사회에 대처해 갈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회의 지도층을 대상으로 노화현상의 예방과 나이가 들더라도 성공적으로 노화될 수 있는 지식을 배우는 장수사회선도 최고전략과정을 6개월 과정으로 운영해 10기 졸업생을 배출했다. 그리고 은퇴를 앞두고 있는 세대들에게 건강을 비롯해 노후를 성공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다양한 전문지식을 교육하는 제3기 인생대학을 1년 과정으로 운영해

의사로서 피부노화를 연구하고, 그 기초 연구결과를 활용해 인체의 노화현상을 이해하고자 기초연구 및 임상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노령사회의 사회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문제 해결에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즐겁게 연구하고 있다. 노화고령사회연구소는 우리나라가 당면한 과제 중에 제일 심각한 저출산·고령화 현상의 해결책을 연구하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만큼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서울大同窓會報 참여·협력·영광

발행인 徐廷和
편집인 金英豪
인쇄인 朴承熙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 연구공원 416호
(장학빌딩 주소: 서울시 마포구 새창로 7)
•전화 (02)702-2233 팩스 (02)886-2218
•e-메일 snua1969@naver.com

논설위원 金哲洙, 金鎮銅, 宋丙洛, 李炯均, 安炳燦, 丘月煥, 金好俊, 宋鎮赫, 李五峰, 洪性萬, 安國正, 李成俊, 李慶衡, 李元馥, 文昌克, 姜天錫, 高永才, 金仁圭, 徐玉植, 李元燮, 裴仁俊, 嚴基永, 朴時龍, 辛京珉, 尹在錫, 李東植, 鄭世溶, 朴聖姬, 許英燮, 鄭興寶, 金亨珉, 李東官, 金悅日, 李啓聖, 金鎮國, 吳在錫, 崔英勳, 李容式, 許承虎, 金昌均, 李先敏, 全榮基, 姜孝祥, 李相起, 金光德, 鄭星姬, 鄭在權, 申然瑋, 姜京希, 權石泉, 鄭然旭, 蔡耕玉, 許文明, 申藝莉, 金伶姬, 金希媛, 洪智英, 李佳穎

편집부장 安興燮 편집부 기자 金南柱, 林香默, 邊廷洙, 朴秀埰

신년사

“지성·겸손·봉사의 자세 지녀야”

“순박한 초심과 善意志 확립 필요”

서울대총동창회 徐廷和회장

서울대학교 成樂寅총장

존경하는 成樂寅총장님, 부회장님, 자문위원님, 단과대학회장님, 지부동창회장님, 그리고 누구보다도 자랑스러운 동문여러분!

광복 70주년 2015년 을미년을 맞이해 선후배 동문 여러분의 가정에 만복이 깃들고 소망하시는 일들을 모두 성취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명확히 정립하는 1백20년사 편찬을 조속히 금년에 마치고 1백억원 들여서 역사관 건립을 서둘러 과거와 미래의 정신적 등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서울대인 전원은 35만명입니다. 회장으로 취임하고 나서 동문조직을 살펴보니 35만명의 동문 중 연

결이 가능한 동문은 지금까지 10만명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이후 10만명을 지금까지 더 확보했고 올해 나머지 15만명도 추가로 찾아내어 동지애를 굳게 다질 계획입니다. 그래야만 35만명의 서울대인의 정신이 일체화 될 것이며 우리의 숙원인 평화통일민주이상국가건설도 이 힘이 아니고 누가 해낼 수 있겠습니까?

“

서울대인에게는 실용적인 지성과

함께 수양된 깊은 인격을 통해서

한없는 겸손함을 지녀야 발전적

민주정의사회로 혁신할 수 있는

창조적 능력이 형성되고 비로소

통일국가사회를 조성, 봉사할 수

있는 자격이 이룩됩니다.

”

이에 주요국가에도 총동창회 창립의 계획을 갖고 각국으로 확산하겠습니다. 미국을 위시해서 작년에는 중국과 일본에 창립총회를 개최했고, 금년에는 호주, 베트남, 인도네시아에 총동창회를 창립하겠습니다.

35만 동문 전체 연락 가능토록

이렇게 세계적인 동문네트워크를 구축해 어느 나라에서도 동문의 단합과 나아가 통일국가를 위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하고 각국에서도 존경받는 엘리트 집단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미국권 이외에서도 IVY리그 졸업생이 인정받듯이 우리 서울대인은 어느 나라에서도 존경받을 이미 세계적 지성인이며 언젠가는 세계지도층으로 추대될 시발점이 되리라 믿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광복·분단70주년 2015년 특별한 뜻이 담긴 한해의 뜻 있는 시작을 축하하며 아무쪼록 희망찬 새해를 열어 나가시길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동문 여러분! 乙未年 靑羊의 해가 밝았습니다. 서울대학교 총장 취임 이후 처음 맞는 신년이기에 남다른 감회와 함께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신세기를 열어나가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국립대학이라는 기본적인 틀은 유지하면서도 사상 초유의 국립대학법인



체제로 전환된 지 벌써 3년이 지나 서울대학교는 법인체제의 제도적 기반을 다져가고 있습니다. 이제 서울대학교는 헌법이 보장하는 대학자치의 이념에 기초해 국립대학 법인체제의 발전 기초를 튼튼히 하는 데 우리 구성원 모두 힘을 쏟아야 합니다. 새로운 발전 모델의 정립은 우리 스스로 개척해 나가야 합니다. 법인 체제의 거버넌스 구조를 비롯해 교육·연구시스템, 재원기반, 재정회계운영, 재산관리, 인사관리 등 대학운영 전반에 국립대학과 법인 체제가 여전히 혼재해 있는 상황으로 구성원들 역시 체제 전환의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인체제의 발전 기초 튼튼히

국가와 국민에 대해서도 국립대학법인이 어떠한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아직도 분명한 모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처음 의도했던 ‘국립대학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아니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라는 개별법으로 새롭게 탄생한 서울대학교의 확실한 모습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변화의 시점에서 우리는 물질적 성과지상주의나 현란한 임기응변을 배척하고 대학정신을 회복하기 위해 순박하고 순수한 초심과 善意志(guter Wille) 확립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지난해 우리 사회는 있어서는 안 될 여러 일들로 가슴 아파했고, 특히 학내외적으로 만연했던 비인간적인 일들은 슬픔을 뛰어넘어 결과적으로 우리의 정신세계를 파괴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순박한 초심과 기본을 저버린 결과로서, 무분별한 경쟁과 과도한 물질만능의 시류에 편승한 개인성취 지상주의가 낳은 부작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총장으로 취임하면서 서울대학교가 나아가 갈 방향의 하나로 ‘순한 인재상’ 정립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선의지가 충만한 인재를 양성해야 하고, 지식활동 또한 선의지로 충만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구성원들이 내세우는 지성·기지·관단력·재능·초지일관성 등은 그 자체만으로도 매우 훌륭한 것이지만, 선의지가 우리의 의지작용 전체를 관통하고 생활의 근본을 구성하도록 확립하는 것이 서울대학교 이성의 도덕적 사명일 것입니다.

선의지는 우리 모두의 의지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국가와 국민, 나아가 세계가 서울대학교에 바라는 것은 어떠한 난관이 오더라도 이러한 선의지를 굳건하게 실천하

조하는 길에 서울대학교가 앞장서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시대가 요구하는 가치관과 시대를 선도하는 지식으로 무장한 참된 인재, 즉 ‘선한 인재’를 양성하며 공동체의 미래를 이끌어갈 역량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켜야 합니다. 신학기부터 차상위 계층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최소한의 물질 토대를 제공하고자 ‘선한 인재 장학제도’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우수한 인재들이 물질적 소여의 부담으로 인해 선한 인재로 성장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적박한 환경 속에서도 서울대학교는 대한민국 학문의 선도자적 역할과 사명에 충신했어 왔습니다. 이 시점에서 학문의 철학적 기반을 다시 한 번 재점검하고 분자화된 학문체계의 울타리를 넘어 지식생산 체계를 창조적으로 재편하는 작업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국민과 함께하는 서울대학교 본연의 모습이자 서울대학교가 추구하는 시대적 사명입니다.

신학기부터 ‘선한 인재 장학제’ 시행

서울대학교는 그동안의 발전을 토대로 국가를 넘어 세계 차원에서 새로운 책임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고유의 지식창조 모델을 세계사적 차원에서 확립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와 인류의 미래를 위한 창의적 의제를 발굴하고 세계적 수준의 연구 성과를 도출하는 학문의 중심으로서 서울대학교의 정체성을 더욱 확고히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당연하게 받아들이었던 학문의 지정학적 세계 질서(geopolitics of academic knowledge)에 과감하게 도전해야 합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미래를 향한 도전을 통해서 학문공동체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야 합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총장이라는 막중한 책무 앞에 ‘우리 모두가 자랑스러워하는 대학(SNU with Pride)’,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대학(SNU with People)’, 그리고 ‘세계와 함께하는 대학(SNU with World)’을 서울대학교의 미래상으로 제시하며, 이를 위한 초석이 되고자 다짐했습니다.

새해를 맞는 새로운 희망과 각오로 우리에게 부여된 임무와 과제를 결연히 실천해 갑시다. 서로를 신뢰하고 격려함으로써 공동체적 가치의 핵심인 共同善이 실현되는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갑시다. 우리 모두 함께 성장하고 함께 실천하는 乙未年 靑羊의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장학금 30억 지원·결연사업 확대

成樂寅총장님이 2020공약에서 서울대를 세계 10위권에 올려놓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이러한 상황의도가 배려된 것이고 동창회에서 이에 전력 지원할 것입니다.

그 일환으로 모교에 적극적인 연구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연구비를 5개년 계획으로 70억원을 책정·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어 금년에는 장학금 30억원을 마련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재정적 지원만을 했던 장학개념을 넘어서 엄습해오는 암운을 여러분들 이상으로 돌파해나갈 능력과 도전정신을 키우는 멘토이자 후원자가 될 수 있는 훌륭한 선배와 결연시켜 전인적인 기개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서울대인에게는 실용적인 지성과 함께 수양된 깊은 인격을 통해서 한없는 겸손함을 지녀야 발전적 민주정의사회로 혁신할 수 있는 창조적 능력이 형성되고 비로소 통일국가사회를 조성, 봉사할 수 있는 자격이 이룩됩니다.

우리가 후배들에게 이 정신을 습득시키지 않는다면 슬픈 퇴보를 한 순간에 국가는 다시금 나락으로 빠집니다. 그런 연유에서 서울대학교의 역사적 의의



徐廷和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서울대인에게는 실용적인 지성과 함께 수양된 깊은 인격을 통해 겸손함을 지녀야 강력한 민주정의사회로 혁신할 수 있는 창조적 능력이 형성되며 비로소 국가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고 말했다.

徐회장 “선후배 결연사업에 적극 동참하길”



成樂寅총장 축하사



林光洙명예회장 건배사



鄭義和국회의장 덕담



玄敬大수석부의장 덕담



黃祐呂부총리 덕담



姜信浩고문 덕담



李吉女부회장 건배사

유공 동문 26명에 감사패·공로패 수여

1천여 동문, 보람·성취의 한 해 기원

본회(회장 徐廷和)는 지난 1월 9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각계 동문 1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교례회를 개최했다.

KBS 成世正(정치86-91)이나 운서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徐廷和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서울대가 지난 QS세계대학평가에서 31위를 했지만 이 사회를 오히려 위협하고 있는 것은 인재양

성의 절대적 부족”이라고 전한 뒤 “成樂寅총장님이 2020공약에서 모교를 세계 10위권에 올려놓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이러한 상황의 도가 배려된 것으로 동창회에서 이에 전력 지원할 것이며, 그 일환으로 모교에 적극적인 연구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연구비를 5개년 계획으로 70억원을 책정·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금년에는 장학금 30억원을

마련했습니다마는 단순히 재정적 지원만을 했던 장학개념을 넘어서 엄습해오는 암운을 여러분들 이상으로 돌파해나갈 능력과 도전정신을 키우는 멘토이자 후원자가 될 수 있는 선배와 결연시켜 전인적 기개를 제공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회장으로 취임하고 나서 동문조직을 살펴보니 35만명의 동문 중 연결이 가능한 동문은 지금까지 10만명 정도에 불과했지만 10만명을 더 확보했고 올해 나머지 15만명도 추가로 찾아내어 동지애를 다질 계획”이며 “주요국가에 총동창회 창립으로 세계적인 동문네트워크를 구축해 어느 나라

에서도 동문의 단합과 나이가 통일국가를 위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하고 각국에서도 존경받는 엘리트집단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모교 成樂寅총장은 축사에서 “사상 초유의 국립서울대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로 전환된 지난 3년간 모교는 헌법이 보장하는 대학자치의 정신을 이어받고, 거기에 기초해서 대학의 자율성을 확보한 가운데 경영혁신을 이루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이제는 이 시대가 요구하는 가치관과 시대를 선도하는 지적으로 무장된 참된 인재, 즉 ‘선한 인재’를 양성하며 공동체의 미래를 함께 이끌어 갈 역량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고자 한다”며 “이를 위해 금년 3월 학기부터 차상위계층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물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취임사에서 ‘우리 모두가 자랑스러워하는 서울대’,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서울대’, ‘세계와 함께하는 서울대’의 세 가지 캐치프레이즈를 제시했는데 우리 모두가 자긍심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때, 선한 인재들이 국민들의 사랑을 받을 때 비로소 모교는 세계를 이끌어 가는 대학이 될 수 있다”며 “모교가 국가적 책무와 시대적 사명을 완수하고 우리사회의 공동선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동문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고 당부했다.

신년사에 이어 분회 權舜赫·姜信浩고문, 林光洙명예회장, 徐廷和회장, 李吉女·洪性大·鄭鍾旭·玄明官·玄敬大·裴仁俊·崔守鉉·鄭義和부회장, 모교 成樂寅총장, KBS 李仁浩이사장 등이 새해에는 모교와 동창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동문 모두 보람과 성취의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며 참석자들을 대표해 시루떡 나눔 행사를 가졌다.

시루떡 나눔 행사에 참여한 鄭義和국회의장은 새해 인사말을 통해 “국립대를 나온 사람은 국민을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만큼 대한민국이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서울대 동문 모두가 앞장서주시길 부탁드립니다”며 “우리 국회 역시 국민들로부터 더 많은 사랑을 받는 국회가 되도록 의장으로 서 임기동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고 말했다.

민주평통 玄敬大수석부의장은 “올해는 분단 70년이 되는 해로 이제는 분단의 아픔을 극복하고 국민들의 뜻이 하나로 모아지는 소중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고, 또 국립대학교가 갖는 의미를 다시 새기면서 대한민국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 우리 동문들이 하나로 뭉치는 해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만찬에 앞서 진행된 축하공연에서는 동문 합창단 ‘서울대 COE합창단’이 ‘내 마음의 강물’과 ‘연가’에 이어 양곡곡 ‘조국찬가’를 불러 행사장의 흥을

161차 상임이사회

조직 강화 등 예산 21억원 편성



본회는 지난 1월 8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에메랄드룸에서

본회 회장단, 각 단과대학(원) 동창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

161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동창회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동창회는 올해 진목, 회보 발간, 회원 조직 강화 사업 등에 21억1천1백2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올해 회비수입으로 11억6백40만원, 회보 광고, 찬조금 등으로 10억4백80만원을 예상했다.

이날 洪性大부회장은 “모교 개학 1백20주년을 맞아 개학연도인 ‘1895’를 이름으로 한 기념 와인 등을 제작하면 좋겠다”고 조언했으며, 辛鉉雄부회장은 “디지털시대에 걸맞게 동창회보의 온라인화를 더욱 강화해 회보 발간 비용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南)



공로패 수상자와 함께 : 李文漢·朴恩熙동문, 徐廷和회장, 卞柱仙·姜普英 동문



감사패 수상자와 함께 : 辛東烈·柳承斌·成耆鶴동문, 成樂寅총장, 朴孟浩동문, 申一汕동문 대리 수상자(여동생), 姜普英동문

成총장 “선한 인재 발굴해 사회 공동선 실현”



李仁浩KBS 이사장 덕담



洪性大부회장 건배사



鮮于仲皓 前총장 덕담



金仁圭부회장 건배사



金文洙 前경기도지사 덕담



裴仁俊부회장 건배사



사회 成世正아나운서

돈왔다. 林光洙 명예회장은 건배사에서 “나라 안팎으로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 서울대인들이 더욱 일치단결해 사회적 책무를 완수해 나감으로써 국가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원하며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진정한 서울대인으로서 앞으로도 모교와 총동창회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는 예로부터 온화하고 온순해 평화를 상징하는 ‘양’의 해’로 우리 동문 모두 기쁘고 평화로운 일만 가득한 한 해 되기를 중심으로 바라며 총동창회와 모교의 발전을 기원하는 건배를 제의하겠다”며 “위해서!”를 선창했다.

유공 동문 시상식에서는 동창회 활성화를 위해 헌신한 단과대학(원) 및 지방지부, 특별과정동창회 직전 회장인 尹友錫(공대)·卞柱仙(사대)·李文漢(수의대)·千文宇(약대)·禹昌彬(국제대학원)·安永求(부산지부)·黃基錫(포항지부)·姜普英(AIP)·孫一洙(AMPP)·梁好錫(AFB)·朴恩熙(AMPFRI)·高永一(AFP)·成映穆(ASP)·金光憲(IFP)·全益寬(ABKI)·崔炳五(AWASB) 동문 등 16명에 공로패를 수여했다. 金鍾顯(SPARC)·洪在聲(AFP) 동문에게는 공로상을 전달했다.

또 모교 발전 및 동창회 활성화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한 도서출판 민음사 朴孟浩(불문52-57)회장, 양지진흥개발 柳承斌

(공업교육63-71)회장, 한세에스 24홀딩스 金東寧(경제64-68)회장, 불스원 申鉉宇(화학공학66-70)부회장, 영원무역 成耆鶴(무역66-70)회장, 넥센타이어 李鉉奉(경영68-76)부회장, 깨끗한나라 崔炳敏(외교71-75)회장, 성문전자 辛東烈(GLP 3기)회장, 나노카보나 申一汕(AMPRFI 14기)대표, 의료법인 안동병원 姜普英(AIP 33기)이사장 등 10명에 감사패를 수여했다.

민찬 중에는 이날 참석자들을 대표해 주요 인사들이 새해 덕담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李吉女부회장은 “우리 서울대인은 우리나라가 고도성장을 하는 데 있어 정치, 경제 등 여러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견인차 역할을 해왔다”며 “올해는 우리 동문 모두의 성원에 힘입어 모교에서 노벨상 수상자가 반드시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덕담과 더불어 건배사를 통해 ‘서울대는 강인하고, 남을 배려하며, 스마트하고, 타인에 봉사하고, 일꾼 중에 가장 일꾼이다’는 뜻을 담아 “강남스타일”을 힘차게 외쳤다.

姜信浩고문은 “저는 새해 들어 ‘인간’, ‘시간’, ‘공간’의 ‘三間’에 대해 생각해 봤다”며 “사는 것이 다 같은 것 같으면서 모두 다르고, 이 三間에 따라 그 생활양식이 달라지고 있는데 인간, 시간, 공간 사이에서 잘 되면 모든 것이 잘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李仁浩 KBS 이사장은 “올해 광복 70주년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

로는 반쪽만의 광복이 됐기 때문에 진정한 광복을 성취하는데 있어 올해가 정말 큰 전환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우리 서울대인이 누구보다 큰 공헌을 할 수 있는 기운을 받길 원한다”고 전한 뒤 “서울대 만세”를 건배사로 선창했다.

鮮于仲皓 前총장은 “최근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통해 우리가 걸어온 길을 생생하게 접하며 그 당시 고생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나라를 오늘날까지 키워놓은 뒤에는 우리 동문들이 있지 않나 생각한다”며 “그동안 고생하시고 나라를 위해 애써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며 동문 모두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洪性大부회장은 “올해가 모교 개학 12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서 개학 당시인 1895년을 기억한다는 의미로 모교와 총동창회가 합심해 ‘1895 와인’을 생산하면 좋겠다”고 제안한 뒤 ‘1895’로 건배 제의를 했다.

계속된 덕담에서 裴仁俊부회장은 “모교와 총동창회, 그리고 이들을 품고 있는 대한민국의 앞날을 이끌어주기를 기원하는 뜻에서 건배사를 하겠다”며 “대한민국을 위해서, 서울대학교를 위해서, 동

창회의 활동을 위해서,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동문 여러분의 건승과 행복을 위해서”를 외친 뒤 “위해서”를 선창했다.

金仁圭부회장은 “푸른 말은 가고 푸른 양이 오면서 올해는 지난 해와 달리 여러 가지 좋은 일이 많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제가 ‘푸른 말’을 외치면 모두 ‘푸른 양’을 답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黃祐呂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우리나라가 오늘날 이민족 성장한 데는 모교가 우뚝 서 있고, 그 인재들이 있었다고 자부하며, 이제는 우리가 누리고 받았던 사랑을 후배들에게 쏟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徐廷和회장님께서 어려운 일을 맡으셔서 우리 총동창회를 잘 이끌어주시는 데에 감사 드리고 새해에는 더 큰 일을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金文洙 前경기도지사는 “올해는 경제도 어려운데 많은 국민들

의 경제 걱정도 덜어 주시고, 또 앞으로 미래를 향한 천년의 꿈, 남북 통일도 일어나는 좋은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고 기원했다.

이어 중앙대 鄭興淑(가정교육 59-63)명예교수가 趙芝薰시인의 시 ‘빛을 찾아가는 길’을 낭송했다.

행사 후 참석자들은 본회에서 준비한 포크와 티스푼 세트와 (재)서울대 발전기금에서 제공한 돋보기를 기념품으로 받았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동아쏘시오그룹 姜信浩(의학46-52 본회 고문)회장이 더스노 마스크와 도다나 연고, 신라문화선양회 金許男(행정 49-52)이사장과 대성그룹 金英薰(행정71-75)회장이 서적 ‘내가 본 대한민국’과 ‘야생이 인생에 주는 서바이벌 지혜 75’를 각각 협찬했다. 또 일동후디스 李金器(약학 55-59 본회 부회장)회장이 그릭 요거트, 양지진흥개발 柳承斌(공업교육63-71)회장이 용산 드래곤 힐스와 이용권을 협찬했다. (香)



동문들로 구성된 'COE합창단'의 축하무대

ShinhanCard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신한카드 Simple

서울대 총동문회 회원만을 위한 제휴카드 1장으로
할인 및 회비 자동납부 혜택까지 제공됩니다.

[연회비] VISA 1만원

신한은행 결제계좌로 변경하시고 다양한 혜택을 누리세요!

혜택 1



6천원 캐시백

신한은행 계좌변경 후 30일 내(변경일 포함) 10만원 이상 신용카드를 이용하시면
카드이용 10만원 이상 발생시점 익월부터 **2개월간 총 6천원**(3천원×2회)
캐시백 제공(매월 25일 경)

혜택 2



신한은행 금융수수료 면제

신한은행 계좌변경 즉시 적용[단, 신규회원의 경우 신규일 + 7영업일 후 적용]
인터넷뱅킹/폰뱅킹/모바일뱅킹 송금수수료, CD/ATM 마감 후 출금수수료
3개월간 최대 30회[월 최대 10회×3개월] **면제**(전 수수료항목 합산 적용)

※ 이벤트 행사는 신한카드 고객센터 또는 홈페이지에서만 변경 시 혜택이 적용됩니다.
※ 자세한 이벤트 내용은 신한카드 홈페이지에 진행 중 이벤트를 참고바랍니다.



신한카드 고객센터 1544-7000



신한카드 홈페이지 www.shinhancard.com

※ 본 카드의 서비스 내용은 신규 출시 이후 1년 이상 축소, 폐지없이 유지되고, 부가서비스 변경 시에는 변경사유, 변경내용을 6개월 이전에 홈페이지, 이용대금명세서, 우편서신, 전자우편(e-mail)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고지하여 드립니다.
※ 제휴업체의 일방적인 제휴조건 변경, 도산, 천재지변, 금융환경의 급변, 신용카드 사업자의 경영위기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따른 변경 시에는 사전에 고지하되 사전고지가 불가능한 경우 사후고지하여 드립니다.
※ 필요 이상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경우 신용등급이나 이용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연체이자율은 연체일수 및 약정금리에 따라 23.0~29.5%가 적용됩니다. 세부내용은 신한카드 홈페이지(www.shinhancard.com)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신용카드 남용은 가계경제에 위협이 됩니다.

준법감시 심의필 제 141014-0132-002(2014. 10. 14 현재유효)



본보 송년 편집회의

徐회장 “동문사회 소통의 장 역할” 당부

본회(회장 徐廷和)는 지난 12월 17일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대회를 에서 송년 편집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본회 林光洙 명예 회장, 徐廷和 회장을 비롯한 회장 단과 관악회 임원, 모교 成樂寅 총장, 金鍾瑞 교육부총장을 비롯한 보직교수, 각 단과대학동창회장, 본보 논설위원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본회 徐廷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앞으로 동창회보가 동문사회의 따뜻한 정을 전하는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올미년에도 변함 없는 우정과 사랑, 그리고 지성, 겸손, 봉사의 서울대인 가치가 우리 사회의 큰 등불이 될 수 있도록 해 모교와 총동창회의 꿈과 희망이 알차게 영글어 가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成樂寅 총장은 축사에서 “올해는 세월호 사건을 비롯해 여러 가지 일들이 겹쳤던 다사다난한 해였지만 돌아오는 올미년에는 조용한 전진을 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한다”며 “새해에도 총동창회의 발전이 곧 모교의 발전으로 이어지길 기원한다”고 전했다.

林光洙 명예회장은 건배제의를 하며 “나라 안팎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 서울대인이 더욱 일치 단결해 사회적 책무를 완수해 국가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원하며,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진정한 서울대인으로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모교와 동창회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이어진 건배제의에서 李吉女 부회장은 “언론인들이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으나 우리 동문 언론인들은 정론직필로 사회가 안정되고 국가가 발전되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전한 뒤 “올해 유난히 다사다난했던 해인 만큼 새해에는 괴롭고 어려운 일은 가고, 기쁘고 행복한 일은 오라”며 건배 구호를 외쳤다. 한편 참석자들은 본회 徐廷和 회장이 협찬한 포크와 티스푼 세트, 모교 成樂寅 총장이 협찬한 달력, 李吉女 부회장이 제공한 라모르 접시 세트, 李金器 부회장이 협찬한 그릭요거트와 케어3 음료, 金鐘燮 부회장이 협찬한 하모니카, 成蒼鶴상대동창회장이 협찬한 플리스 재킷 등을 받았다. 〈香〉



앞줄 좌로부터 權鎔大·尹仁虎·吳英元·金富鉉·柳興洙·陳東煥·任 洸·玄東實 등문

일본동창회 柳興洙대사 취임 환영회

일본동창회(회장 尹仁虎)는 최근 일본 동경 KKR호텔에서 柳興

洙(법학58-65)주일 대사 취임 환영회를 개최했다.

한편 일본동창회 오사카지부는 지난해 11월 15일 정기총회를 열고 梁官洙(사회복지71-07)동문을 회장으로 선출했다.

2백여 동문 한자리에 부산지부동창회

부산지부동창회(회장 權達述)는 지난 12월 1일 부산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동문 가족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宋圭政(사학63-67)·安永求(공업교육65-69) 명예회장, 權達述(조소62-66)회장, 부산시 金錫俊(사회75-79)교육감, 부산지방법원 尹寅台(법학80졸)법원장을 비롯해 2백여 명의 동문 및 가족이 참석했다. 각테일 파티 및 정기총회로 진행된 1부에서 安永求 명예회장에게 공로상을 수여했다. 2부 송년음악회에서 李恩玉(기악87-91)·김도경(기악88-92)·김미현(기악98-02)·문주원(기악98-02)·金玟京(기악06-10)동문이 현악기와 피아노 연주를 펼쳤으며, 소프라노 金賢愛(성악95-99)동문이 ‘O Holy Night’, 테너 林忠珍(성악81-85)동문이 ‘남몰래 흐르는 눈

물’을 공연해 분위기를 돋웠다. 또 화가로 활동 중인 姜洪允(회화55-59)동문과 崔雅子(회화60-64)동문이 동창회 발전을 기원하며 각각 미술작품 1점을 기증했다.

불우이웃 성금 출연 안동지부동창회

안동지부동창회(회장 李薺九)는 지난 12월 8일 경북 안동시 정하동 청록 한정식당에서 20여 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송년 정기모임을 가졌다. 이날 간의 소식을 전하며 회포를 풀고 지역 내 동창회의 자리매김을 위해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는 동문들은 식사 이후 전통놀이와 경품 추첨 등을 통해 친교를 쌓았다. 李薺九 회장은 동문들에게 송년 및 새해 인사를 전하며 “우리 동창회가 그냥 형식적인 모임에서 보다 더 성숙하고 알찬, 인간적이며 화목한 모임으로 진전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본회 부회장에 羅卿瑗 동문 선임



본회(회장 徐廷和)는 지난 12월 17일 제25대

부회장에 羅卿瑗(사법82-86)국회의원(사진)을 추가로 선임했다. 羅 부회장은 3선 국회의원으로서 서울행정법원 판사, 한나라당 대변인, 한국스페셜올림픽위원회 회장, 모교 행정대학원 초빙교수,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 집행위원 등을 역임했다.

한편 동창회는 매년 연말마다 동창회 명의로 꾸준히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출연하고 있으며, 2014년에 모금한 성금 1백만원을 안동KBS에 기탁했다. 〈秀〉

제17회 ‘관악대상’ 후보자를 찾습니다

모교와 동창회의 발전을 위해 협력함은 물론 사회 각 분야에서 훌륭한 업적을 쌓아 국가와 사회에 공헌해 모교와 동창회의 명예를 드높인 동문(비동문) 또는 단체를 찾습니다. 동문 여러분께서는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시고 여러 이웃 동문에게도 널리 알려 많은 후보자를 추천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 상 부 문
참 여 상	모교 발전과 동창회 활성화에 적극 참여해 기여한 동문 개인 또는 단체
협 력 상	모교 발전과 동창회 활성화에 유무형의 헌신과 봉사로 기여한 동문·비동문 개인 또는 단체
영 광 상	사회 공익과 국가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훌륭한 업적을 쌓아 모교와 동창회의 긍지와 명예를 드높인 동문 개인 또는 단체
해 외 상	해외에 거주하면서 모교와 동창회 발전을 위해 위의 3개 상에 버금가는 특별한 공로가 있는 해외 동문에게 3년 주기로 시상할 수 있음.

1. 시상 부문 : 동창회 지표인 ‘참여’ ‘협력’ ‘영광’에 따라 세 부문으로 구분
2. 구비 서류 : 추천서, 피추천자의 공적사항
3. 추천서 접수 : 1) 접수마감 : 2015년 1월 31일
2) 접 수 처 :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 연구공원 본관 415호
서울대총동창회 사무처(전화 : 02-702-2233 · 팩스 : 02-703-0755)
4. 시상 시기 : 서울대총동창회 정기총회(2015년 3월 20일)

서울대총동창회 관악대상 운영위원회

제12회 서울대 언론인 大賞 “수상 후보자 추천해 주세요”

서울대 언론인 大賞 관리위원회는 제12회 ‘서울대 언론인 大賞’ 수상 후보자를 추천받습니다. 서울대 언론인 大賞은 관악언론인회와 서울대총동창회가 한국 언론의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큰 서울대 출신 언론인에게 시상하는 상입니다. 서울대 언론인 大賞 후보자를 널리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추천대상 : 서울대 출신으로 국내외 신문사, 방송사, 통신사, 잡지사에 근무하는 언론인, 언론사 경영인, 언론학자, 언론단체 종사자, 언론정책 담당자
2. 추 천 인
1) 신문사, 방송사, 통신사, 잡지사의 대표, 주필, 주간, 해설위원장, 편집·보도국장, 편집장 등 부서장
2) 언론단체의 대표
3) 대학 언론학 학과장, 대학원장
3. 심사대상 : 2013년 12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의 공적을 원칙으로 하며, 최근 3년 이내의 공적도 참고할 수 있음.
4. 제출서류
1) 추천서 : 후보자의 상세한 인적사항과 이력 및 경력, 공적 개요, 추천 사유를 명기한 자유 양식의 추천서를 작성해 E-mail(snu1969@naver.com)로 접수시켜야 함.
2) 공적 자료 : 주요 기사, 방송 자료, 논문, 공적서를 파일화해서 E-mail로 접수. 필요에 따라 직접 제출 가능
5. 추천기한 : 2015년 1월 31일
6. 수상자 발표 : 2015년 2월 중순
7. 시 상 식 : 2015년 2월 26일 관악언론인회 정기총회
8. 문 의 : 02)886-2219

서울대총동창회·관악언론인회
서울대 언론인 大賞 관리위원회

모교 역사 자료 수집에 동문 1백96명 기증



본회와 모교 기록관이 진행하고 있는 모교 역사연구 기록관 건립 자료 수집에 지난 12월 1~31일 25명의 동문이 추가로 접수했다.

이로써 지난 11월 30일 이전에 기증한 동문 1백71명을 통합해 현재까지 총 1백96명의 동문과 교직원 이 소중한 자료를 보내왔다.

추가 기증자와 접수품은 다음과 같다.

▲許振烈(경성사범44졸)동문: 졸업 축하편지, 졸업증서, 성적우수상, 통지표, 졸업사진 등 ▲정대민(대학원47입)동문: 대학원 1회 졸업기념 버클 ▲吳在奎(화학52입)동문: 벨트 버클 ▲河斗鳳(생물52-56)동문: 1950년대 '생물학연구' 논문집 총 3권 ▲金后蘭(가정교육53입)동문: 3·1절 기념 학도호국단 가두행진 사진 2매(1953년), 사범대학 교지 '사대학보' 창간호, 국문학회 회원명부, 사범대학 예술전 프로그램 ▲趙正濟(체육교육53-57)동문: 표창장 등 ▲金榮祐(화학공학55-59)동문: 공과대학 13·14회 졸업앨범 ▲李萬喆(금속공학56-60)동문: 수업노트 및 보고서, 공과대학소식지, '금속' 학우회지, '불암산', 음악공연안내서, 금속공학과 단체사진(1957년), 공과대학 14회 졸업앨범(1969년) 등 ▲鄭在灌(화학공학57-61)동문: slide rule ▲金鍾斗(화학59-65)동문: 조부 金思漢(법관양성소 2회 졸업)동문 졸업증명서

사본 ▲朴玉淳(불문59-63)동문: 문리대 학보(2권), 사대학보(1권), 산문시대(1권) ▲朴興日(영어교육60-64)동문: 사범대학 졸업앨범(1923~1976년), 기독교동창회보 '서광'(창립 50주년 문집, 55주년 약사특집), 기독교 학생 동창회보 '반석'(아공 탄생 1백주년 및 창립 40주년 기념), 졸업증서 및 교육공무원 자격증, 행정대학원 학위기 및 학생증, 기독교 동문회 페넌트 <사진> ▲李茂根(농생물60-64)동문: 수업계획서 및 출석부(1999년), 졸업기념 사진(1969년), ROTC 앨범(1964년), 1960년대 성적카드, 배지, 교육대학원 및 농업교육과 현관, 봉급명세서류, 상장, 임명장, 학생증 및 신분증류, 졸업증서, 목각도장 등 ▲李在益(불문60-64)동문: 합격통지서, 학생증(1963년) 등 ▲田永國(전기공학60-64)동문: 공과대학 배지, 벨트 버클, 넥타이핀, slide rule 등 ▲俞炳權(전자공학61-65)동문: 졸업증서, 졸업앨범, 수강노트 4권, 과제물, 전자공학과 시간표(1964년), 교과서 3권 ▲金英男(화학공학61-65)·金洋子(약학61-65)동문: 공과대학 19회 졸업앨범(1965년) 및 졸업증서, 화학공학과 정기총회(1989년) 참고서적 'Chemical Engineer's Handbook' 1권, 약학대학 19회 졸업앨범(1965년) 및 졸업증서, 경영대학 AMP과정 18기 수료 기념패 ▲金在夏(법학63-68)동문: 법과대학 계간지 '법학' 제1권 1호 ▲朴康文(국어교육63-68)동문: 1973년 4월 창간사대 서적 ▲崔錫珍(지리교육63-67)동문: 사범대학 졸업앨범 ▲金在潤(농생물64-72)동문: 수원 농과대학 본관 앞 사진(1964년) ▲趙明來(수의학70-74)동문: 1970년대 수업교재, 강의노트, 졸업기념패 등 ▲陳炳春(행정70-74)동문: 졸업증서, 학위등록증, 상장 및 상패류, 졸업앨범 등 ▲柳殊馨(기계설계75-79)동문: 1970년대 열람증 및 학생증, 등록증(1983년), 간행물, 티셔츠 등 ▲申載弘(국어교육80-84)동문: 1980년대 수업노트 및 보고서, 학위기, 버클 등

서울대학교 역사 자료를 찾습니다

1. 수집 대상: 서울대학교 역사를 보여줄 수 있는 모든 기록물

- 1) 문서류: 행정 업무수행과정에서 생산된 문서류, 수업 관련 강의노트 및 과제물, 자치단체 회의록 등
- 2) 시청각물류: 교내 교정 및 학내 행사 사진·영상자료, 각종 슬라이드, 강의 오디오 및 비디오 자료 등
- 3) 간행물류: 팸플릿, 리플릿, 소식지, 요람, 편람, 졸업앨범 등
- 4) 박물관: 교표, 교기, 배지, 교복, 감사패, 현관, 액자, 직인, 기념품, 상장, 임명장, 개인애장품, 성적표 등
- 5) 기타 대학 역사와 관련된 모든 자료(원품, 모사품, 앨범 포함)

2. 수집 기간: 2015년 12월 31일까지(마감기일 연기)

3. 수집 방법: 직접 방문 또는 우편접수

4. 문의처: 서울대학교총동창회

전 화: 02-702-2233 팩스: 02-703-0755 E-mail: webmaster@snu.ac.kr
주 소: (151-015)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 연구공원 본관 415호
담당자: 김진현 대리 핸드폰: 010-7224-0755
서울대학교 기록관
전 화: 02-880-8819 팩스: 02-884-7149 E-mail: archives@snu.ac.kr
주 소: (151-015)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기록관 220동 446호
담당자: 김봉은 전문위원 핸드폰: 010-3032-5913

5. 제공자 혜택: 역사연구기록관에 제공자 성명을 표시하는 등 혜택 제공

서울대학교총동창회 회장 서정환·서울대학교 총장 성낙인



송년회에 4백여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박容眩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합춘학술상·장기려의도상 수여

의대동창회

의과대학동창회(회장 박容眩)는 지난 12월 16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합춘송년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제18회 합춘학술상 및 제11회 장기려의도상 시상식을 겸한 이날 우수 논문을 발표한 토마스제퍼슨대 姜維九(의학71졸)교수, 울산대 梁碩均(의학79-86)교수, 모교 내과학교실 任才準(의학88-94)교수에게 합춘의학상을, 모교

생화학교실 金鍾侑(의학84-90)교수에게 합춘동의학학을 수여했다. 장기려의도상은 행려환자 및 알코올의존증 환자, 외국인 노동자 등에게 인술을 펼친 건국대 신경외과 高英超(의학71-77)교수에게 돌아갔다.

동문 시상에 이어 의대 비전 추진단장을 맡고 있는 任才準교수가 의학도서관 건립을 위한 홍보 프레젠테이션을 펼쳤다.

任교수는 1백억원을 목표로 현재 15억원의 건립 기금을 모금했다고 밝혔다.



정기총회에서 차기 金載學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차기 회장에 金載學동문 선출

공대동창회

공과대학동창회(회장 尹友錫)는 지난 12월 12일 모교 관악캠퍼스 엔지니어하우스에서 林光洙 명예회장, 尹友錫회장, 공과대학 李建雨학장을 비롯해 1백여 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 및 송년회를 개최했다.

송년 행사에 앞서 진행된 정기

총회에서 하이젠모터 金載學(기계공학66-70)대표를 차기 회장으로 인준했다.

신임 金회장은 모교 졸업 후 MIT 대학원 기계공학과, UC버클리 대학원(공학박사), 하버드대 경영대학원 등을 졸업했으며 한국중공업 기술본부장, 포스코건설 부사장, 효성 대표, 국립합창단 이사장, 한국 하버드대 경영대학원동문회장 등을 역임했다.



安小榮·趙炳熙·全金子·魚秀美·裴吉漢·金旻永동문

명부 배포·자랑스러운 동문 시상

보건대학원동창회(회장 裴吉漢)는 지난 12월 15일 모교 관악캠퍼스 호암교수회관 마로니에홀에서 70여 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 및 송년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동창회는 5년 만에 회원명부를 새롭게 제작해 동문들에게 나눠줬다.

송년회에서는 자랑스러운 동문으로 선정된 全金子(보대원72-74)前육군간호병과장, 경상대 예방의학과 洪大容(보대원78-80)교수, 유한대 보건의료행정과 尹寅熙(보대원79-82)교수,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魚秀美(보대원83-85)대기환경연구부장을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다. (南)



앞줄 馬奎河·梁承現·李秉宰·李哲雨·金文洙·李在述·金炳道·金英大·許哲夫·尹惠淳동문

金文洙 前지사 시국 현안 특강

경대원동창회

경영대학원동창회(회장 李在述)는 지난 12월 5일 쉐라톤서울 디큐브시티호텔에서 ‘2014 경영인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모임에는 金英大·李哲雨 명예회장, 李在述회장, 모교 경영대학 金炳道학장, 金文洙 前경기도지사, 任太熙 前대통령실장 등 50여 명의 동문이 참석했다.

경영대학원 출신 모임답게 이날 모임의 화두는 우리나라 경제 불황이었다.

李在述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여기 계신 분들이 경제계에 많이 몸담고 있지만, 경영자들을 컨설팅하면서 IMF때보다 더 어렵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는다”며 “책 ‘2030 : 기회의 대이동’에서 저자

가 말한 것처럼 세계불황과 우리 경제 불황이 겹치면 IMF 환란에 버금가는 위기가 2020년 전에 한번 더 오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드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金炳道학장은 경제불황에 이은 취업난에 대해 “경영대학 학생들도 저학년 때부터 24시간 치밀한 계획을 세워 취업모드에 들어가는 상태”라며 “요즘 가장 반가운 사람이 일자리를 창출해 주는 분일 정도로 취업난이 극에 달했다”고 전했다.

이날 특강 연사로 초청 받은 金文洙 前경기도지사는 사회 전반에 걸친 여러 현상에 대한 문제점과 그에 대한 원인을 밝히면서 “우리 나라의 저성장이 구조화되고 고착화되는 상황에서 정치대혁신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결이 어렵다”고 진단했다.



金錫俊회장(여섯 번째)이 신입 회원들과 기념촬영을 했다.

아프리카 봉사 활동 동문 격려

기독동문회

기독동문회(회장 金錫俊)는 지난 12월 16일 모교 관악캠퍼스 호암교수회관 마로니에홀에서 제57회 정기총회 및 신입회원 환영회를 개최했다.

특별히 이날 아프리카 남부 작은 나라인 스와질랜드에서 의료 봉사활동을 하며 의과대학 설립을 추진 중인 李秉國(의학80-86)동문이 참석해 회원들의 격려를 받았다.

충남대 의학교육과 교수를 지낸 李秉國동문은 “의대 선배인 金仙英·南相倫동문의 열정으로 2015년 스와질랜드에 의대 설립을 앞두고 있다”고 전했다.

金錫俊회장은 “1백여 년 전 서양 선교사들의 의료·교육 봉사활동으로 한국이 큰 도움을 받았는데 이를 되 갚는 일에 우리 동문들이 앞장서고 있다는 것에 큰 감동을 느낀다”며 “안양대 총장으로서 저 또한 스와질랜드 등 아프리카

를 위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깊이 고민해 보겠다”고 말했다.

송년 모임서 우의 다져 마로니에회

문리대 64학번 동기 모임인 마로니에회(회장 鄭昭盛)는 지난 12월 17일 서울 강남 한식집에서 송년 모임을 가졌다.

이번 모임에는 뿌리회 회장을 맡게된 高惠玲(사학64-68)동문, 이화여대 具汰列(영문64-68)명예교수, 도산서원 선비문화수련원 金炳日(사학63-67)이사장, 소설가 南東佑(사학64-72)동문, 대한민국의학술원 李漢龜(철학64-68)회원, 문화재위원회 任敦姬(고고인류64-68)무형문화재분과위원장, 林用哲(물리64-68)前국방과학연구소 선임연구원, 단국대 鄭昭盛(불문64-69)명예교수, 朱剛秀(지질64-68)前한국가스공사 사장 등이 참석해 저무는 한 해를 아쉬워하며 동기생들과 우의를 다졌다. (南)

새 회장에 林昌奎동문 선임

수의대 임상동문회

수의과대학 임상동문회(회장 朴

昌欽)는 지난 12월 11일 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송년회 및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신내동물병원 林昌奎(수의

학85-92)원장을 만장일치로 회장에 선출했으며, 감사에는 韓三星(수의학84-88)·임한균(수의학

85-92)동문이 선임됐다. 총회 후 해마루동물병원 김현욱(수의학94-99)원장에게 모교 수의대인상을 수여했다.

동문작품

지상 전시회



남도의 봄, Acrylic on canvas, 162.2×112.1cm, 2010년

※ 작가 한마디 : “언제부터인가 동백은 내 그림의 화두가 됐다. 우리민족 삶의 애환과 정서가 가장 잘 녹아있는 꽃이 동백이 아닐까 생각했다. 가장 먼저 남쪽바다의 섬으로부터 봄소식을 가져다주는 동백꽃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남쪽바다와 섬

이 자리하는 동백그림은 사실화이기보다는 나의 내면에 자리잡고 있는 그리움과 꿈을 드러내는 조형적 언어이며, 이 그림을 통해 내가 가서 머무르고 싶은 가상의 주소이며, 닫힌 현실로부터의 해방감과 탈출을 시도하고자 하는 표현일 수 있다.”

朴惠玲 作

〈작가약력〉

- ▲1978년 모교 회화와 졸업
- ▲개인전 4회
- ▲초대전 및 단체전 80여 회
- ▲現한국미술협회, 서울가톨릭미술가회, 한국여류 수채화가협회, 훈육회 운영위원, 한국전업미술가협회 수채화분과위원, 갑인동인전, 우리가까이전, 해나리수채화전 회원.

Since 1999

에스노블은
다이아몬드와 큐빅의
차이입니다

반짝임만으로 당신을 현혹시키는 큐빅과 달리 다이아몬드는 색상, 투명도 등 까다로운 '기준'에 의해 그 가치가 결정됩니다.
대한민국 최초 상류층 결혼정보회사

S Noble

다이아몬드처럼 까다로운 당신의 결혼, 에스노블이 함께합니다.

에스노블 회원가입문의 T. 02.3445.4777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101-7번지 패밀리빌딩 2F <http://www.snoble.com>
결혼중개업 신고번호: 강남080045



趙炳熙·姜普英·李泰榮·金椿鎭·朴浩永·姜寅求동문

자랑스러운 보건인 동문 축하

HPM동창회

보건의료정책 최고관리자과정 동창회(회장 朴浩永)는 지난 12

월 17일 서울 장충동 그랜드엠 배서더호텔에서 朴浩永회장, 모교 보건대학원 趙炳熙원장, 본회 姜寅求부회장 등 2백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송년의 밤 행



張槿茂·朴炳燮·南文基·崔順泰·王容來·申鳳錫·宋忠元·姜南植동문

王容來동문 경영인 대상 받아

FNP동창회

식품영양산업 CEO과정동창회(회장 崔順泰)는 지난 12월 11일 서울 삼성동 도심공향터미널 서울 컨벤션에서 崔順泰회장을 비롯해 모교 생활과학대학 池根億·黃金澤 교수 등 2백여 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송년회 겸 식품영양산업 경영인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최근 수료한 6

기 동기회의 입회금 전달과 인사말이 있었으며 식품영양산업 경영인상을 시상했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식품영양산업 경영인 대상에 킹스코 王容來(4기)대표, 경영인상에 디엔비 南文基(1기)대표, 대명제분 朴炳燮(2기)대표, 지지에프바이오 申鳳錫(3기)회장, 동원청과 姜南植(4기)대표, 제이에스후레쉬테크 宋忠元(5기)대표, 다정 張槿茂(6기)회장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 태준제약 李泰榮(1기)회장, 안동병원 姜普英(1기)이사장, 우리들병원 李相昊(3기)이사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金椿鎭(4기)위원장에게 자랑스러운 서울대 보건인상을 수여했다. 또 모교 보건대학원 權純晚교수와 초대가수 최유나 씨에게 감사패, 金道淵(13기)동문 등 4명에게 공로패를 전달했다. 이어진 순서로 가수 최유나 씨와 모교 비바중창단, 동문가족들의 공연이 만찬과 함께 펼쳐졌다. 이날 행사를 위해 朴浩永회장, 趙炳熙원장 등 40여 명의 동문들이 3천여 만원의 금품을 후원했다.

李載坤회장 추대·경영대상 시상

AMPFRI동창회

식품 및 외식산업보건 최고경영자과정동창회(회장 朴恩熙)는 지난 12월 3일 임시총회를 열고 임원 개선을 통해 새 회장에 李載坤(27기 한양디자인가구 대표)수석 부회장을 추대했다. 이어 12월 29일에는 서울 소공동 조선희호텔에서 송년회 및 경영대상 수상식을 개최했다. 송년회에는 崔仁植초대 회장을 비롯해 역대 회장들과 신임 李載坤회장, 모교 보건대학원 趙炳熙원장, 李承旭명예교수 등 2백50



李載坤회장, 朴恩熙 前회장

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경영대상은 리나스대성 林南洙(29기)대표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어 李峰萬(21기)수석 부회장이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푸드뱅크에 1천2백만원 상당의 식품 기증서를 전달했다. 만찬과 함께 바리톤 金東圭 씨의 지휘로 원우들로 구성된 'AMPFRI합창단'의 공연이 펼쳐져 동문들의 박수갈채를 받았다.

張昌炫회장 선출

AFP동창회

최고지도자 인문학과정동창회(회장 高永一)는 지난 12월 2일 모교 관악캠퍼스 엔지니어하우스에서 高永一회장, 모교 金鍾瑞교 육부총장, 張在盛인문대 학장을 비롯해 1백 20여 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 기수 합동강의 및 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합동강의에서는 모교 철학과 白琮鉉(철학69-73)교수가 '왜 지금 철학인가?'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이어진 총회에서 임원 개선을 통해 신임회장으로 張昌炫(7기)동문을 선출했다. 임기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작된다. 신임 張회장이 高永一 前회장, 崔致鉉중간사, 張明珍학술간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邊)

만 평

李元馥



安泰國회장 추대

ABKI동창회

문헌지식정보최고위과정동창회(회장 全益寬)는 지난 12월 1일 서울 서대문구 구세군빌딩에서 全益寬회장을 비롯해 모교 金鍾瑞교

육부총장 등 50여 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총회 겸 송년회를 개최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난타공연을 관람한 후 임원회의에서 새 회장으로 추대된 安泰國(2기 투스카로라 대표)수석부회장을 차기 회장으로 추인했다.

대표이사 박수경 [84사 소비자학과]

만남이 아니라 결혼이다.
느낌만으로는 모르는 일.
조건만으로도 안 되는 일.
누가 누구와 만나야 하는지
사람을 알아야 하는 일.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아무나 잘할 수 없는 일.

결혼해두세요

• 국내지사 서울 / 수원 / 인천 / 천안 / 대전 / 전주 / 광주 / 대구 / 부산 / 울산 / 창원 • 해외지사 뉴욕 / LA / 뉴질랜드

메듀오 1577-8333

당신이 만난 수많은 낯선 것들

낯설고 두렵지만
당신의 발은 이미 모험을 향해
한발 한발 나아가고 있습니다.

당신이 탐험을 시작할 때
노스페이스의 도전은 시작됩니다.

다시, 탐험 속으로



서울대학교 동문 및 자녀 분들을
특별한 혜택으로 모십니다.
(전용상담 02-3445-2557)



친절하고 편안한 무료상담
1577-2050
www.nnoble.co.kr

고품격 노블레스 No.1
전문직/엘리트/상류층 성혼전문

엔노블 결혼정보회사

서울본사(압구정) · 부산지사(해운대 센텀)
미국동부(뉴욕, 플러싱, 맨하탄) · 서부(LA)



엔노블은 가장 신뢰받는 결혼정보회사입니다.

-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10개 명문대 총동창회 “동문 및 자녀” 결혼상담 협력사
- 한국경제신문 프로슈머, KBS TV가이드 추천 “BEST 결혼정보회사”
- 경향신문 유망브랜드대상, 모범기업인대상 “국회보건복지위원장상” 수상

엔노블은 성혼을 제일 잘하는 결혼정보회사입니다.

- 성혼주의 - 수준 높은 이성과 가장 많이 만날 수 있는, 성혼에 최적화된 회원제
- 프로필 안심 보증제 - 프로필이 사실과 다를 경우 최고 2억원 배상(책임보험)
- 부산직영지사 및 미국 4개 협력지사 운영 ■ VIP, 전문직 전담팀 운영

전문직/엘리트/노블레스 성혼전문



엔노블
결혼정보회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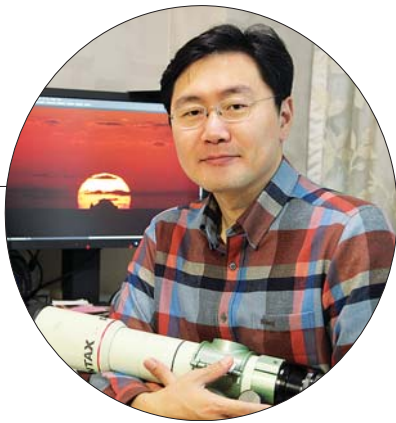
국내 결혼중개업 신고번호 강남 080002

서울본사 |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50-16 상원빌딩 3~5층 부산지사 | 부산시 해운대구 우동 1514 센텀리더스마크 4006호



화제의 동문

천체사진가 權五 哲동문



맑은 밤하늘 은하수와 별뿔별, 달에 가린 금성, 찬란한 빛깔의 오로라... 천체사진가 權五哲(조선해양공학92-96)동문의 특별한 피사체들이다. 權동문은 20년 넘게 별 사진을 찍어온 프로 사진가다. 세계 유명 천체사진가 33인의 모임 TWAN(The World At Night)의 유일한 한국인 멤버이기도 하다. 美항공우주국(NASA)이 선정하는 ‘오늘의 천체 사진’, 내셔널 지오그래픽에도 여러 번 그의 사진이 실렸다.

이 두 곳에 사진이 선정되는 것은 미국에서 교육 자료로 쓰이거나 작품성, 시의성 등 까다로운 기준을 통과했다는 뜻인 만큼 천체사진가에게는 영예로운 일이다.

천문 사진 단체 TWAN 멤버

지난 12월 23일 서울의 작업실에서 權동문을 만났다. 그는 일찍이 저서 ‘신의 영혼 오로라’(씨네21북스刊)와 TV 다큐멘터리 등을 통해 오로라 전문가로 이름을 알렸다. 지금까지 1백번 넘게 오로라를 봤다는 權동문은 “오로라는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경이로운 자연 현상”이라고 말했다.

“오로라가 밤하늘 전체를 덮으면 땅에서도 빛이 나요. 하얀 설원이 오로라 빛을 반사하면서 위아래 할 것 없이 사방이 형광빛

으로 번쩍거리죠. 제 사진의 목표가 내 눈으로 본 그 경이로움을 전달하는 겁니다. 생애 최고의 오로라를 봤던 날엔 ‘사진으로 는 재현이 안 되겠다’ 싶어 아예 촬영을 포기한 적도 있어요.”

더욱 생생한 표현을 위해 그는 ‘타임랩스’ 기법을 도입했다. 장시간 연속 촬영한 수많은 사진을 이어붙여 영상으로 만드는 타임랩스는 시간에 따른 구름과 별 등의 변화를 극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기법이다. 최근 그가 작업한 가수 로이킴의 뮤직비디오에도 이 기법이 쓰였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타임랩스와 관련해 어딘가 막히면 權동문을 찾을 정도로 세계적인 실력자다.

“10년 전만 해도 밤하늘을 표현한 영상은 전부 컴퓨터 그래픽이었죠. 빛이 부족한 밤하늘은 일반적인 비디오 카메라로 촬영하기 어렵거든요. 요즘 TV, 스마트폰의 화질 데모 영상이나 광고에서 볼 수 있는 아름다운 별들은 모두 ‘리얼’이에요. 타임랩스로 별을 쉽게 영상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됐죠.”

모교 천문동아리 A.A.A 출신

權동문은 고교 시절 천문우주기획 李泰炯(화학83-87)대표의 베스트셀러 ‘재미있는 별자리 여행’(김영사刊)을 읽고 천체 관측

주기로 나타나는 혜성을 찍기 위해 신입사원 연수 중 무단 외출을 감행한 적도 있다. 생애 첫 오로라를 보고 돌아온 그는 자신의 ‘진짜 꿈’을 찾아 마침내 전업 사진가의 길을 택했다. 진로에 고민이 많은 청소년들과 경험을 나누기 위해 ‘진짜 너의 꿈을 꺾라’(명진출판刊)라는 책을 펴내기도 했다.

權동문은 최근 3년의 도전 끝에 울릉도에서 독도의 일출을 촬영하는 데 성공했다. 붉게 떠오른 태양이 독도를 한가운데 품은 장관을 포착한 것이다. 맑은 날 독도에서 울릉도가 보이듯 울릉도에서도 독도가 보이겠다 싶어 시작한 일이었다. 울릉도와 독도 간의 연관성을 입증해 역사적인 의미도 깊다.

“말 그대로 ‘무한 도전’이었어요. 독도 바로 위로 해가 뜨는 2월과 11월이 되면 섬에 들어가서 살았죠. 삼각함수를 적용해 촬영 위치도 잡았는데 울릉도에서 독도까지 90km가 깨끗이 보일 만큼 맑은 날이 많지 않았어요. 웬만한 해의 촬영보다 더 힘들었지만 생각한 건 꼭 해야 한다는 마음이었죠.”

權동문의 새해 계획 1순위는 오로라 여행이다. 오로라를 저녁 노을만큼 자주 볼 수 있는 ‘오로라의 수도’ 캐나다 옐로나이프를 찾을 예정이다. 태양 활동 극대기와 맞물려 지금이 최고의 오로라 시즌이라는 그의 귀뜸이다. 마지막으로 사진가로서 목표를 더 어렸다.

“아무리 유명한 사진가도 죽고 나서 그 이름으로 떠올릴 수 있는 사진은 한두 장이지요. ‘권오철’의 대표작이 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살면서 꼭 그런 사진을 찍고 싶습니다.” (秀)

NASA가 인정한 별·오로라 사진 권위자
“울릉도에서 독도 일출 장면 담아냈죠”

의 재미에 빠지게 된다. 모교에 입학하자마자 아마추어 천문회(A.A.A)에 가입, 천체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미대에 개설된 사진학 강의를 들을 정도로 열심이었다.

별이 맺어준 소중한 인연들도 있었다. 알고 보니 李泰炯동문이 동아리 선배여서 깜짝 놀랐고, 李동문이 만든 PC통신 천문동호회 ‘별사랑’에서 지금의 아내를 만났다. 각별한 인연 덕에 李동문은 30대의 젊은 나이에 權동문의 결혼식 주례를 설 뻔도 했다.

졸업 즈음 개인전을 열 정도로 수준급 사진 실력을 갖추게 된 權동문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카메라를 놓지 않았다. 1만여 년

‘행복편지’ 朴市 浩발행인

얼마 전 공대동창회 송년 모임에서 한 권의 책을 받았다. 제목은 ‘행복편지’. 감동적인 사연, 에세이 등을 서울의 주요 관광 거리, 건물 사진과 엮은 책이었다. 공대동창회 尹友錫 前회장이 “내용이 좋다. 일독을 권한다”며 동문들에게 한 권씩 선물했다.

1분1초가 아까운 리더에겐 ‘감동사연 다 이제스트’로 활용도가 높아 보였다. 발행인인 朴市浩(AMP 60기)동문이 매일 배달하는 ‘박시호의 행복편지’의 일부를 엮어 연말에 카드 대신 지인들에게 선물용으로 만든 책이었다. 행복편지 회원인 尹 前회장이 그 책을 받고 다시 동문들과 감동을 나눈 것이다.

‘행복편지’는 정리금융공사 사장, 우체국 예금보험지원단 이사장을 역임한 차동문이 2003년부터 보내기 시작해 약 20만명의 사람들이 내용을 공유하며 희망찬 하루를 시작하고 있다.

지난 12월 22일 서울 압구정동 한 카페에서 만난 차동문은 행복 전도사답게 말투는 정겨웠고 시종일관 웃음 띤 얼굴이었다.

정치의 꿈 접은 행복 전도사

2003년부터 메일을 보냈으니 11년째, 날로 계산하면 4천일이 넘는다. 행복편지는 동영상 느낌이 나는 ppsx 파일로 작업하기 때문에 손이 많이 간다. 내용을 취합, 정리하는 데도 얼마나 많은 시간이 소요되나. 돈이라도 되는 걸까.

“2011년 말 공직에서 물러나면서 수월해 지긴 했지만 그 전에는 사실 벅찼죠. 행복편지는 5백명의 지인에게만 발송하는 거라 돈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지인들이 재전송을 해주시고 또 퍼져서 약 20만여 독자들이 읽고 있다고 합니다만, 목적은 친한 분들과 좋은 세상을 만들자는 취지에서 시작했고 지금도 정해진 회원들과 소통을 원칙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처음 발행 의도는 사실 조금은 불순(?)했다. 羅雄培(경제53-57)前부총리의 보좌관과 비서관을 17년간 하며 정치에 대한 꿈이 있었다. 국회의원 출마를 하기 위해선 출판

11년간 매일 아침마다 행복 메시지 배달
강연·사진 수익금 등 매년 2천만원 기부

기념회 등을 통해 자신의 소신을 밝히는 자리를 마련해야 했다. 책 발간을 위해 자신의 글과 좋은 자료들을 축적했다.

“당연한 길이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뜻대로 되지 않고 세월만 가더군요. 모아둔 자료들이 아까워 그 중 일부를 친구들에게 보냈어요. 반응이 예상외로 좋았어요. 그런데 매일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어느 날 한 분에게 메일이 왔어요. ‘어렵고 힘들겠지만 계속 보내달라. 당신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행복을 느끼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아, 내가 그동안 행복을 주는 일을 해왔구나’. 그때부터 사명감을 갖고 ‘행복 편지’란 제목을 붙여 보내기 시작했죠.”



‘박시호의 행복편지’는 말 그대로 편지이기 때문에 쌍방향 소통이 중요하다. 받기만 하는 사람은 언젠가 갚는다.

“수신인은 5백명이 적정하다는 회원들의 의견도 있고 해서 늘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도 관심도가 떨어지는 사람은 제외시키고 열의를 보이는 분을 다시 받습니다. 그렇게 해오다 보니 현재 회원들은 진짜 이 사회를 아름답게 변화시킬 열망으로 가득 찬 분들이죠. 편지를 늘 주고받으며 개인적으로 또는 함께 불우이웃 돕기 등 많은 일을 하고 있죠. 행복편지 묶음 책도 회원들의 기부로 제작되고 있고요.”

아름다운 세상을 위해 차동문은 행복편지

발행 외 사진 재능 기부도 열심이다. 홍대 부고 동창인 金重晚 사진작가에게 배운 사진 실력이 상당하다. 중형 디지털카메라까지 보유하고 있다.

회원들 기부금으로 책 펴내

“기업체에서 달력을 만들겠다며 꽃 사진이 필요하다고 하면 주고 대신 복지단체에 기부를 유도합니다. 최근에는 신한생명 우수 FC 2백60명의 프로필 사진을 찍어줬는데, 신한생명 연수원 로비에 걸 예정이라고 하더군요. 신한생명 역시 복지단체와 연결을 시켜줬어요.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일이지요.”

그렇게 해서 그가 매년 사회복지단체에 기부하는 돈은 약 2천만원.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2010년 세종나눔봉사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차동문은 TV를 볼 때도, 여행을 다닐 때도, 책을 볼 때도, 사람들을 만날 때도 늘 행복편지의 주제를 생각한다. 행복편지가 그의 일상인 셈이다. 그가 말하는 행복한 삶은 무엇일까.

“아프리카 빈민에게 행복을 물을 수는 없죠. 행복을 논할 수 있는 기준이 가족당 월 4백만원의 수입이라고 합니다.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이웃들이 주변에 많잖아요. 한국 사람들의 자선 기부금이 약 17만원(연간)이라고 들었습니다. 적어도 그 이상은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웃이 행복해야 모두가 행복하지 않을까요.” (南)

화제의 동문

새 시대를 이끌어 갈 창조적 지성과 상상력의 공간 “CEO를 위한 인문학 강좌”

제16기 최고지도자 인문학과정 (Ad Fontes Program)

- 교육기간 2015년 3월 3일(화) ~ 7월 14일(화)
- 수업일시 ○ 매주 화요일 18:30 ~ 21:40 (1일 2강좌)
○ 국내 워크숍 (1박2일) 1회, 해외 워크숍 (2박3일) 1회
- 모집인원 45명 내외
- 입학자격 ○ 공사기업체 CEO(회장·사장·임원)
○ 행정,입법,사법부의 고위 공직자
○ 금융,언론,의료 등 사회 각계각층의 고위 전문직 인사
○ 기타 위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지도급 인사
- 교육내용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에게 인간과 문화에 대한 원천적 이해를 추구하는 인문학적 지혜와 지식을 제공
- 접수기간 2015년 1월 7일(수) ~ 2월 10일(화)
홈페이지 온라인 지원
- 문 의 처 최고지도자 인문학과정 사무국
전화 : 02) 880-2570 / 팩스 : 02) 871-0064
이메일 : apply@snuafp.com
홈페이지 : www.snuafp.com

제13기 미래지도자 인문학과정 (In Futurum Program)

- 교육기간 2015년 3월 4일(수) ~ 2015년 7월 1일(수)
- 수업일시 ○ 강의 (1일 2강좌) 매주 수요일 18:30 ~ 22:00
○ 오리엔테이션 1박 2일
○ 해외 문화탐방 2박 3일
- 모집인원 40명 내외
- 입학자격 ○ 공사기업체 상급 관리자 및 공무원
○ 법조, 금융, 의료 등 사회 각계각층의 전문직 종사자
○ 개인사업가
○ 기타 위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자
- 주 제 나와 만나는 인문학
- 접수기간 2015년 1월 2일(금) ~ 2015년 2월 6일(금)
- 문 의 처 미래지도자 인문학과정 사무국
전화 : 02) 880-6291 / 팩스 : 02) 882-6291
이메일 : snuifp@snu.ac.kr
홈페이지 : http://www.snuifp.com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백리 깊은 나무가
천년을 이어갑니다

거친 비, 바람에도 버텨온
고려아연의 뿌리는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고려아연의 최고 경쟁력은 사람입니다.
마음껏 일하며 개개인의 창의적인 능력이 발휘될 수 있고
정당한 평가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열린 환경을 만들어 갑니다.

 고려아연(주)
www.koreazinc.co.kr

“6천5백억 사업비 집행…원조 비율 더 높여야”

동문을 찾아서

한국국제협력단 金永穆이사장

정부의 무상원조 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하 코이카)이 올해로 설립된 지 25년째를 맞는다. 설립 당시 1백86억 원 규모였던 예산은 올해 6천5백억원으로 35배 늘었다.

코이카에서 해외로 보내는 봉사자 수는 연간 4천5백명으로 미국 평화봉사단 다음

으로 많다. 세계 최빈국으로 원조를 받던 나라가 반세기 만에 원조 공여국으로 확실한 탈바꿈이 이뤄진 것이다.

지난 12월 29일 경기도 관교 집무실에서 코이카 수장으로 대한민국 국격 높이기에 앞장서고 있는 金永穆(불문72-76)동문을 만났다.



대담 : 金光德(데일리한국 뉴스본부장)논설위원

— 취임한 지 1년 반 정도 지났는데, 주로 어떤 일에 역점을 두셨는지.

“정부로부터 재원을 받아 쓰기 때문에 국민의 세금에 책임지는 기관이 되고자 애썼습니다. 결국 잘 쓰고, 투명한 기관이 되는 일이었죠. 또 선진 원조기관을 비롯해 빌게 이츠재단, 록펠러재단 등 여러 저명한 민간 재단과의 협업을 구체화하고 지식을 공유함으로써 기관의 선진화에 한발 더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특히 질적 성장을 위해 그동안 펼쳐온 활동에 대한 데이터화와 평가시스템 구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국제원조투명성기구(IATI) 가입을 정부에 건의해 조만간 가시적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원조 사업의 효율성·투명성을 제고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해외서 코이카에 대한 기대가 상당하다고 들었습니다.

“전쟁으로 완전히 파괴됐던 한국이 반세기 만에 선진국이 됐기 때문에 개발도상국들이 우리나라를 모델로 삼아 발전하고 싶은 욕구가 아주 커요. 원조 선진 기관들도 한국이면 뭔가 하겠다는 기대가 있고요. 우리의 성장 경험을 바탕으로 든든한 길잡이가 돼 줘야죠. 또 한류가 퍼지면서 코이카란 이름으로 사업을 펼치면 우리보다 열 배 돈을 쓰는 일본 못지 않게 성과가 두드러지는 효과를 보고 있죠. 역으로 한국어와 한류를 밑바닥에서 보급하는 사람들이 우리 봉사단원들입니다. 한국어를 가르치는 봉사단원이 태국에 50명, 베트남에 40명 정도 있습니다. 동남아에서 한국어의 인기는 여기서 상상하는 그 이상입니다.”

— 개발 지원에 대한 해외의 관심이 높은데,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해 주신다면.

“潘基文 유엔 사무총장의 특보 역할을 했던 미국 컬럼비아 대학의 제프리 삭스 교수는 불평등·빈곤 타파를 앞장서서 주장하시는 분인데, 이 분이 밀레니엄 프로미스라는 재단을 만들어 아프리카 빈곤 지역을 찾아가 활용한 모델이 새마을운동이었어요. 실제로 우리와 협업하자고 해서 새마을운동을 모델로 마을 개발 사업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시아를 비롯해 아프리카, 최근에는 중남미 지역까지 전세계적으로 50여 개국 정부가 농촌 개발을 한국의 새마을방식으로 해달라고 공식 요청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난감할 정도입니다.”

— 최근 청년뿐 아니라 은퇴하신 분들도 봉사단 지원 열기가 높다고 하던데요.

“경쟁률이 보통 10 대 1 정도입니다. 시



전세계 50여 개국이 새마을운동 사업 지원 요청 뉴욕총영사·이란 대사·KEDO 사무차장 지내

니어 전문가도 마찬가지고요. 최근에는 CEO급 시니어들이 굉장히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吳世勳 前서울시장도 그 중 한 분이죠. 젊은이들의 관심도 높아, 작년에 처음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만 대상으로 기능직 봉사단원을 모집해 90명 정도 보냈습니다. 17~18세밖에 안 되지만 성실히 임무를 수행하면서 그 나라 청년들에게 상당한 도전 의식을 주고 있습니다.”

— 봉사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정식 봉사단은 2년, 단기 봉사단은 6개월입니다.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을 정도의 여비와 주거 공간을 제공하고요. 자문단으로 가시는 분들에게는 좀 더 나은 대우를 하고 있습니다.”

— 코이카의 지원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ODA) 규모가 유·무상 원조 포함해서 2조4천억원대입니

• 金이사장은

외무고시 10회로 1977년 외무부에 입부한 후 주코트디부아르 2등 서기관으로 공관 근무를 시작해 주이란 대사 등을 역임했다. 불문학을 전공하고 프랑스 국제행정대학원을 졸업했지만 외교관 시절에는 주미 1등서기관, 북미 1과장, 북미국 심의관, 주유엔대표부 공사, 한반도에너지 개발기구 사무차장, 주뉴욕 총영사 등을

다. 코이카의 올해 사업비가 6천5백억원입니다. 전체 ODA의 30% 정도 되고, 무상 원조로만 보면 약 70%를 맡고 있습니다.”

— ODA 규모가 늘고 있습니다만, 아직 선진국에 비해 작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유엔에서 관하는 선진국들의 기여 비율이 국민총소득(GNI) 대비 0.7%입니다. 영국, 독일, 스웨덴, 노르웨이 등이 이 비율을 맞추고 있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한 나라의 평균이 0.32%고요. 우리나라는 0.16% 원조하고 있으니 DAC 평균의 절반밖에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사장님은 ODA를 어느 정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는 2015년까지 0.25%까지 원조하겠다고 공약했었는데,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0.16%대에서 머무르고 있어요. 달라야죠. 다만 우리가 실용적·인도적 측면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세계 10대 무역국이고, 개도국과 무역에서 상당한 흑자를 보고 있으면서 파트너 나라의 어려움을 도와야한다면 지속적 관계를 유지하기 힘들죠. 많은 후진국들이 전쟁·테러·재난 등으로 고통받는 정도는 더 심해졌거든요. 상대적으로 안정된 대한민국이 그런 고통을 외면한다면 한국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누가 지원하겠습니까.”

— 업무 추진 과정에서 애로점은 없나요.

“영국이나 일본 특히 중국을 보면 하나로 통합해 ODA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

지낸 ‘미국통’이다. 뉴욕 총영사 재임 중에 한·미FTA 발효와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 노력한 점을 인정받아 뉴욕상공회의소로부터 ‘세계시민상’, 미국 의회로부터 의회 표창을 받기도 했다.

제18대 대선 당시 朴槿惠후보의 통일외교특보를 지냈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외교·국방·통일분과 전문위원을 맡았다. 부인인 판스프링서울의원 정누시아(HPM 9기)원장과 사이에 1남1녀를 뒀다.

리는 여러 곳에서 지원하고 있어서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지원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더욱 합쳐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또 저희들이 1년 동안 통합 프로젝트나 민간 협력 사업 등 1천 건이 넘는 사업을 펼치고, 5천명을 초청해 공부시키고, 4천5백명을 해외로 내보내서 관리합니다. 4백20명의 직원이 이 모든 것을 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가 우리를 보면 굉장히 걱정스러울 정도로 인원 기반이 취약합니다.”

— 외교관으로서 기억에 남는 일이라면.

“첫 임지가 아프리카 코트디부아르였어요. 보통 그런 나라에 가면 2년 근무 후 선진국으로 보내졌는데 저는 3년 일하고 서울로 왔습니다. 당시 주변의 다른 나라 일도 겸임했었고요. 사람과 짐승이 같이 사는 것을 보면서 느낀 게 많았죠. 당시 사귀었던 아프리카 친구들도 생각나고, 마음의 고향같이 가슴 한 켠에 자리잡고 있어요.

외교부에 있으면서 미국과 북한에 관한 일을 많이 했어요. 1994년 제네바에서 북한 핵문제 협상이 타결될 때 협상대표단으로 가 있었고, 이후 북한에 경수로로 지원하면서 북한의 핵프로그램을 동결시키는 구체적인 이행 사업을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를 만들어 진행했습니다. 2006년 제가 KEDO의 사무차장을 맡고 있을 때 KEDO가 문을 닫고 경수로 사업을 접는 결정이 내려졌죠. 신포 경수로 사업 부지에 우리가 상당한 투자를 해서 구조물을 짓고 중장비도 투입했는데 모두 두고 직원들만 철수시킬 수밖에 없었죠. 소련이 붕괴되고, 중국의 파워가 약해 북한이 상당히 위축돼 있을 때 모멘텀을 살려 새로운 관계로 나갔으면 세상이 참 많이 달라져 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평생 가네요.”

(사진·정리= 金南柱기자)



대한민국 명예대표축제

물·불·빛 그리고 우리의 소망!

2015 진주남강유등축제
Jinju Namgang Yudeung Festival
晋州南江流灯节
晋州南江流灯祭り

422년의 역사와 66년전부터 시작된 진주남강유등축제!
유등축제의 원조입니다.
진주로 오십시오!

10.1 ~ 10.11
진주 남강, 진주성 일원

CHARM JINJU
좋은 도시, 편한 진주



희망찬 태안, 행복찬 군민
태안군 <http://www.taean.go.kr>

사랑하는 사람과 아름다운 동행...
태안에서

가슴 따뜻한 겨울여행, 태안으로 오세요!

해상인도교 대하랑꽃게랑

천리포수목원

“기업-학교 간 수익의 선순환 구조 만들어내”

동문을 찾아서

모교 기술지주회사 **朴鍾來** 대표



대담 : 金 伶 姬 (한겨레신문 문화부장) 논설위원

창조경제와 맞물려 산학협력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대학 기술지주회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현재 국내 대학 기술지주회사는 지난해 4개 대학이 추가로 설립한 것을 포함해 총 35개 학교가 설립·운영 중이다. 지난 2008년 문을 연 모교 기술지주회사 역시 연구현장에서 일어나는 성과를 발굴·포작

해 기술 자산의 사업화를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최근에는 국내 최초 창업지원 서바이벌 프로그램인 ‘비 더 로켓(Be the Rocket)’을 실시하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관악캠퍼스 내 연구공원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朴鍾來(섬유공학77-81)대표를 만나 사업 성과 및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들어왔다.

— 전임 洪國善대표의 별세로 조금은 갑작스레 대표직을 맡게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8개월가량 지났는데, 어떠신가요.

“여기 와서 일을 해보니 洪國善교수가 얼마나 훌륭한 분이셨는지, 또 얼마나 엄청난 일을 해 오셨는지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대표직을 맡으면서 이 세계의 용어와 문법을 익히는 일이 급선무였는데, 이젠 어느 정도 익숙해졌습니다.”

— 기술지주회사가 출범한 지도 벌써 6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잘 모르는 동문들이 많습니다.

“사실 오늘 인터뷰에 응한 것도 기술지주회사에 대해 동문님들께 좀 더 알려드리고자 하는 이유가 컸습니다. 한마디로 기술지주회사는 교수, 연구원, 직원 등 모교 구성원들이 창출해 낸 지식가치를 수익가치로 창출해 내는 일을 하는 조직입니다. 산학협력단 산하의 지식재산관리본부에서 기술이전, 기술관리, 계약법제의 업무를 주로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중에서도 기업들이 좀 더 관심을 두는 특허에 대해 기업과 협의를 해서 새로운 벤처회사 및 자회사를 설립하는 것이죠. 이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그 수익이 다시 학교에 유입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내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 지난해 11월 창업지원 서바이벌 프로그램인 ‘비 더 로켓’을 시작했는데, 현재 진행 사항은 어떤가요.

“현재 창업 벤처를 발굴해 교육하는 프로그램은 많이 나와 있지만, 서울대만의 특화된 창업보육 모델의 프로그램을 만들어 전국 대학으로 확산시키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비 더 로켓’은 ‘케이(K) 벤처 모델’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새롭게 출범시킨 실험적인 프로그램입니다. 단순히 창업 아이디어를 공모해 심사하는 데 그치는 다른 프로그램과 달리 실질적으로 시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응모 조건으로 실시했습니다.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과정을 심사해 최종적으로 3팀을 선발해 시장에 제품을 내보낼 계획입니다. 1백61개 팀 중 1~2차 심사를 통해 현재 6개 팀이 경합 중입니다.”

— 창업에 성공을 하게 된다면 수익 배분은.

“비 더 로켓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실험적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수익 배분과 관련해 나누는 것이 없습니다. 2차 심사를 통해 선발된 팀들에



‘서울대’ 상표 단 닭고기·우유 시중서 판매

유망한 특허 지원 위한 동문펀드 조성 희망

대해선 사무공간은 물론 숙식도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창업에 성공했을 때 따로 금전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 실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장기적으로는 수익이 학교로 다시 유입될 수 있도록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야겠죠.”

— 출범 당시 2017년까지 50여 개의 자회사 설립 계획을 세웠는데, 현재 어느 정도 도달했는지요.

“학교가 2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를 자회사로 분류하고 있는데, 특히 저희는 서울대학교의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것을 전제로 자회사를 설립하고 있습니다. 현재 24개의 자회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 3분의 1 정도는 좀 더 집중해서 키운다면 좋은 성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朴대표는

1981년 모교 섬유공학과를 졸업하고 대학원에서 고분자과학 석사학위, 미국 리즈대에서 섬유산업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성균관대를 거쳐 지난 1997년 모교 재료공학부 교수로 부임해 후학양성에 힘쓰는 가운데 나노튜브, 그래핀 등 탄소나노

재료의 설계 및 제조 등 연구에 앞장서고 있다.

모교 공과대학 교무부학장,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위원회 교육과정 전문위원, 한국탄소학회장을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아시아탄소학회 연합회장, 세계탄소카운슬 공동의장,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주력기관 전문위원, 세계탄소학회(CARBON 2014) 조직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 기술지주회사 등을 두고 학교가 비즈니스를 한다고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은 없나요. 또 벤처 관련 일을 하면서 한국의 기업 생태계에 대해 어떻게 느끼셨는지요.

“초기에는 공공섹터에 왜 이익 관련 사업이 들어오느냐는 시각이 있었던 게 사실이지만 지금은 오히려 격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미국 기업의 활력을 얘기할 때 실리콘밸리를 많이 얘기하는데, 관악밸리, 나아가 대한민국 밸리가 조성됐으면 하는 게 바람이고, 그 핵심역할을 서울대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기업들은 네트워크가 탄실하고 안정감 있지만 덩치가 커 혁신이 쉽지 않습니다. 벤처는 역동성과 혁신성이 있습

수 있습니다.”

— 개인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학 시절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는 아쉽게도 대학 생활을 재미있게 보내지는 못했습니다. 민주화 데모와 휴교가 반복되는 등 어려웠던 시기였고, 4년 내내 아르바이트하다가 시간을 다 보낸 것 같아요.”

— 1997년 모교에 부임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와 비교해서 연구환경 등 처우개선은 많이 됐는지요.

“많이 좋아졌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연구비 예산이 계속 늘어남에 따라 연구혜택을 보는 교수들도 늘어났고, 개인적으로 확보해오는 연구비 규모도 커졌습니다. 부임 당시만 해도 고가 기자재가 국내에 많지 않았는데 지금은 연구에 필요한 고가 기자재가 거의 다 있다고 보면 됩니다. 다만 연구공간은 과거에 비해 크게 나아진 것이 없어요. 건물이 많이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교수들의 연구공간은 늘어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 동문들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그동안 우리 동문들이 학교를 위해 많은 도움을 주셔서 건물도 새롭게 세우고 학생들에게 장학금도 많이 줄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는 지식가치에도 투자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술지주회사에 많은 관심을 뒤 주시고 후원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가령 많은 교수님들이 특허를 내고 싶어도 학교 재원에는 한계가 있어서 외부 투자자를 직접 구해야 하기 때문에 기술이 사장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투자조합이나 펀드를 조성해 유망한 특허를 출원 단계부터 지원해주셨으면 합니다. 수익금이 발생했을 때 그중 일부는 다시 학교 발전기금으로 기탁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진= 邊廷朱기자·정리= 林香默기자)

니다. 우리나라에 벤처 성공 토양이 건실하지 못했던 면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큰 기업이 네트워크를 통해 기술을 빼나가거나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럼에도 대기업이 없이는 기술거래시장은 활성화될 수 없습니다. 점차 신뢰와 존중의 문화가 쌓이고 있고, 대기업도 벤처의 혁신성과 대학에서 나오는 신기술에 대해 관심을 높이면서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 지난 6년간 가장 성공사례라 평가하는 사업이 있다면.

“그동안 단순 기술이전으로도 연간 평균 40억원에 이를 정도의 수익을 꾸준히 내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는 점차 단순한 기술이전이 아닌 우리 기술을 바탕으로 한 자회사를 설립해 수익성을 확대하고 있는 것이죠. ‘서울대’의 이름이 들어간 닭고기, 우유 등의 다양한 제품을 시중에서 만나볼

창업휴학제 도입... 최대 8학기 가능

육아·질병 치료 휴학도 연장 허용

모교 소식

모교(총장 成樂寅)는 지난 12월 19일 창업을 일반 휴학이 아닌

별도 휴학 사유에 포함해 2학기를 추가로 휴학할 수 있도록 학칙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2015년부터 학부생이 창업하면 일반 휴학을 포함해 최대 8학기까지 휴학이 가능하게 됐

다. 일반 휴학은 학사과정 6학기, 석사과정 4학기, 박사과정 6학기, 석·박사통합과정 8학기까지 가능하다.

창업휴학제는 교육부가 지난해 9월 미래창조과학부 및 중소기업청과 공동으로 발표한 ‘대학창업 교육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특히 지난 3월에는 각 대학에 창업 목적으로 최대 2년까지 휴학할 수 있도록 한 ‘창업 친화적 학

사제도 운영 매뉴얼’을 배포했다. 운영 매뉴얼에는 창업휴학이 인정되는 창업의 종류를 비롯해 운영 기준, 대상학생의 자격요건 등을 담고 있다.

한편 모교는 창업휴학제 외 육아 및 질병 치료를 위한 휴학 역시 별도 휴학으로 인정했다. 이에 질병 치료는 4학기까지 추가 휴학이 가능하게 됐으며, 육아 휴학은 기존 2학기에서 4학기로 연장됐다.

행정대학원장에 金東旭교수 임명



지난 12월 6일 모교 행정대학원장에 행정학과 金東旭(경제78-82)교수(사진)를 임명했다.

신임 김원장은 모교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미국 오하이오대에서 정책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지난 1994년 모교 행정대학원 교수로 부임해 후학 양성에 힘써 온 한편 전자정부특별위원회·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한국연구재단 설립위원회 위원, 행정안전부 정책자문위원회 정보화분과위원장, 한국정책학회·한국행정학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沈亨輔·白 鎭교수, 李建雨학장, 柳冀潤·韓興南·權泰境교수

신양공학학술상 시상 공과대학

공과대학(학장 李建雨)은 지난 11월 26일 모교 관악캠퍼스 엔지니어하우스에서 제10회 신양공학학술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신양공학학술상 교육 분야는 건축학과 白 鎭(건축88-92)교수, 학술 분야는 컴퓨터공학부 權

泰境(컴퓨터공학89-93)교수, 전기정보공학부 沈亨輔(전기공학89-93)교수, 기계항공공학부 金昊永(기계공학90-94)교수, 올해 새롭게 신설된 산학협력 분야는 재료공학부 韓興南(금속공학86-90)교수, 건설환경공학부 柳冀潤교수가 각각 선정됐다.

‘신양공학학술상’은 신양문화재단 鄭哲圭(화학공학48-52)前이사장이 지난 2005년 제정했다.

창립 66주년 기념행사 열어

미식축구부

모교 미식축구부는 지난 12월 4일 관악캠퍼스 호암교수회관 무궁화홀에서 창립 66주년 및 ‘미식축구부 66년사’ 발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미식축구부 지도교수인 산림과학부 金炫錫(산

림자원89-93)교수를 비롯해 OB·YB선수 및 관계자 1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식축구부의 과거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1947년 법대, 문리대, 사대에서 출발한 미식축구부는 1957년 타 대학 팀들이 창단할 때까지 국내 유일의 팀으로 지난 66년간 전국 및 서울지역 대회에서 우승 24



회, 준우승 14회를 차지하는 등 명실상부한 국내 대학미식축구 강자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미식축구부 출신의 2백50여 동문들은 사회 각계각층에서 활발한 사회활동을 지속함은 물론

대한미식축구협회장, 서울미식축구협회장 등을 맡아 국내 미식축구계를 선도하고 있다.



라오스 의료역량강화 성과 발표

모교 병원

모교 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단(단장 金熙重)과 의과대학 의학교육학교실은 지난 12월 16일 라오스 비엔티엔에서 ‘라오스 주립·군립병원 역량강화 다년간 연수사업’ 최종 성과 보고회를 개최했다.

라오스 보건부와 공동 주관한 이번 보고회에는 모교 의학교육학교실 申佐燮(의학80-97)교수, 尹賢培(의학99-05)연구원 등을 비롯한 국내 사업 담당자와 라오스 보건부 차관, 교육훈련국장, 국립종합의과학대학 총장 및 교수진 등 현지 정부 인사와 의료진 등이 참석해 그동안의 사업성과를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지원으로 2012년부터 3년간 실시된 연수사업은 투앙프라방 주의 주립병원과 군립병원, 남박병원 등의 의료진 83명을 교육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12개 군립병원 의료진들을 각각 10주에 걸쳐 집중 교육함으로써 라오스 최일선 의료진의 역량강화에 크게 기여했다.

환자·가족 위한 송년음악회

암병원

모교 암병원(원장 盧東榮)은 지난 12월 17일 연건캠퍼스 암병원 3층 로비에서 교직원들을 비롯한 환자 및 가족 4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3회 암병원 음악풍경 ‘송년음악회’를 열었다.

이날 음악회에는 총 13명의 연주자가 참여해 가곡 ‘얼굴’, ‘산촌’, ‘눈’, 오페라 ‘주디타’의 아리아, 베토벤의 현악 4중주 18번, 피아졸라의 ‘리베르탱고’ 등을 연주했다.

또 유방암환우로 구성된 한국유



방암예방강사협회 유자밴드가 이문세의 ‘나는 행복한 사람’, 한명숙의 ‘노란 사스의 사나이’ 등 가요를 연주했으며, 모교 이비인후과학교실 金光顯(의학66-72)명예교수가 구노의 ‘아베 마리아’ 등을 불러 박수갈채를 받았다.

통일부와 MOU 체결...통일시대 인재양성

모교는 지난 11월 24일 관악캠퍼스 행정관 4층 소회의실에서 통일부(장관 柳吉在)와 통일시대 인재 양성과 한반도 평화통일 기반 조성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모교 成樂寅총장, 金鍾瑞교육부총장, 金秉文교무처장, 李哲洙기획처장, 孔炳永사무국장, 朴明圭통일평

화연구원장과 통일부 柳吉在장관, 尹美良통일교육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으로 모교와 통일부는 향후 인적·물적 교류를 통해 통일정책 연구 및 통일시대 전문인재 양성 등 상호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노벨상 수상자 특강 자연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학장 金聖根)은 지난 12월 3일 모교 관악캠퍼스 문화관 중강당에서 2011년 노벨화학상 수상자이자 모교 물리전문

학부 석좌교수인 댄 셰흐트만(Dan Shechtman)교수의 특별 강연을 개최했다.

‘A Paradigm Shift in Crystallography’를 주제로 열린 이번 강연에서 셰흐트만 교수는 결정학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香)

극동제약 李禮植 前명예회장

신약개발센터에 총 2억원 쾌척



成樂寅총장, 李禮植 前명예 회장

지난 2012년 모교 신약개발센터에 1억원을 기부한 극동제약 李禮植 (약학46-49 관악회 이사)前명예회장이 1억원을 추가로 출연했다.

모교는 지난 12월 17일 관악캠퍼스 총장실에서 成樂寅총장과 李禮植

동문, 李哲洙기획처장, 약학대학 李奉振학과장과 李相國교무부학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부금 전달식을 가졌다.

모교 신약개발센터 건축기금으로 총 2억원을 기탁한 李동문은 이번 기부 외에도 지난 2006년 본회 장학발달 건립기금으로 1억원을 쾌척하는 등 꾸준히 모교와 동창회에 대한 사랑을 실천해왔다.

李동문은 극동제약 회장, 서울시 약사회 부회장 및 약업위원장, 대한약사회 총무위원장 및 부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지난 1996년부터 2004년까지 8년간 약학대학동창회장을 지내며 모교 발전에 기여했다.

농업생명과학대학 崔鉦哉교수

장학기금 3천만원 추가 출연

농업생명과학대학 식품동물생명공학부 崔鉦哉(축산73-80)교수가 모교에 장학기금으로 3천만원을 기부했다. 모교는 지난 12월 17일 관악캠퍼스 총장실에서 成樂寅총장과 崔鉦哉교수를 비롯해 李哲洙기획처장, 농업생명과학대학 李鶴來학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식을 열었다.

지난 2012년 아들의 결혼 축의금 전액인 7천만원을 기부한 데 이어 이번 기부로 모교에 총 1억원의 장학기금을 조성한 崔교수는 “모교 교수로 재직하면서 많은 혜택을 받아왔다”며 “기부는 당연한 사회적 책임”이라고 말했다.

成樂寅총장은 “교수님의 한결같은 나눔과 배려 정신은 학교와 사회에 큰 귀감이 된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崔교수는 모교 부임 이래 26년간 우리나라 전통 축산분야에 생명공학을 도입해 기술집약적 동물



成樂寅총장, 崔鉦哉교수

산업을 발전시켜 왔다. 기초과학 분야에서부터 실용화 기술개발까지 폭넓은 연구를 수행하며 2백여 편의 SCI논문과 1백여 건의 특허를 등록했다.

또 모교 평창그린바이오 연구소 사업추진단장을 지내며 평창캠퍼스 건립에 크게 기여했다. 기업과 기술이전을 통해 모교 브랜드의 상품을 출시하는 등 기술 산업화 분야의 공을 인정받아 최근 상록연구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글로벌사회공헌단

사회공헌의 밤 행사

모교 글로벌사회공헌단(단장 金星煥)은 지난 12월 17일 모교 관악캠퍼스 우정글로벌사회공헌센터에서 ‘사회공헌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지난해 공헌단이 진행한 20여 가지 사회공헌 활동에 참여한 학생 1백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감사의 뜻을 나누고 지속적인 공헌 실천 의지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참석자들은 그간의 활동 내용이 담긴 사진과 영상, 감사 카드 쓰기 등을 통해 한 해를 돌아보았으며, 인상깊은 활동을 펼친 학생에 대한 감사의 시상이 진행됐다.

金星煥단장은 “봉사란 남을 위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자신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며 “이렇듯 모교 학생들의 행복한 삶이 모여 서울대 사회공헌의 이름으로 지역사회와 한국을 넘어 세계 공동체로 그 행복을 나누는 것이 나라와 사회를 위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秀〉

재학생의 소리

“교내방송으로 학우들과 교감 나눠요”

저희 SUB는 서울대 유일의 방송동아리로, 올해 50주년을 맞았습니다. 역사가 오래된 만큼 훌륭한 선배님들과 체계적인 동아리 활동을 바탕으로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서울대 방송연구회 SUB는 중앙동아리이기 때문에 다양한 학과의 구성원들이 모여 끊임 없이 토론하고 치열하게 고민해 보다 좋은 방송을 제공하고자 늘 노력합니다. 학기마다 수습회원들을 리크루팅하고 여러 트레이닝 과정을 거쳐 교내 방송인으로서의 자질을 갖추 나갑니다. 피디, 아나운서, 기자 등 언론 분야에 진로를 가진 동아리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행보도 더욱 기대되는 바입니다.

SUB는 교내방송을 바탕으로 학생들과 교감하고 소통합니다. ‘Music in SNU’, ‘연애특강’ 등 요일별로 색깔 있는 방송을 편성해 매일 저녁 5시에 방송을 송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저녁방송을 토대로 하는 점심 재방송을 함께 진행해 보다 많은 학우 여러분들이 방송을 듣고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그리고 매주 방송은 페이스북에 업로드해 언제든 다시 들어볼 수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내방송뿐 아니라 외부 업체와도 연계해 ‘day.ly’ 앱에서 서울대 방송 채널을 만들고 송출하는 앱 서



朴 玎 芽

(영어교육12입)

방송연구회 SUB 회장

비스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제 방송에 투입되는 아나운서와 연출들은 모두 트레이닝 과정을 거친 이들로 만큼 최선을 다해 방송에 임합니다.

마지막으로 학기를 마무리하기 전 수습회원들이 한 학기 동안의 방송반 생활을 마치고 정회원이 되는 과정으로 작품을 만들어 발표하는 수습회원 작품발표회를 갖습니다. 예능, 영화, 다큐, 광고 등 여러 분야의 영상을 만들어 발표합니다. 예비 언론인으로 다양한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창의적인 작품을 만들었다는 것, 그리고 이를 통해 모두와 소통하는 장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의미 있는 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서울대를 대표하는 방송동아리로서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배님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을 한 해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 드립니다.

새로운 도약을 준비할 2015년에도

변함없이 그 발판이 될 준비를 갖추고 있겠습니다.

- 키티스 산학연정보 (주) 임직원 일동

2014년 한해, 세 번의 자사 세미나와 총 58회*의 이용자 교육을 비롯하여 제1회 전국 대학생 IEL Quiz Contest를 개최 및 실시하였습니다.

* 고객사 요청에 따른 이용자 교육 횟수



결혼! 참 잘했다

대 명 그 룹	30여년 고객센터 역량 구축 대한민국 레저 No.1 대명리조트의 회원관리 역량 기반 국내 유일 대기업 브랜드/서비스 품질보증
결 혼 정 보	20여년 매칭시스템 운용 대한민국 대표 성혼의 달인/중매 특허 보유 2:1 맞춤형 밀착서비스
웨 딩 컨 설 팅	10여년 웨딩컨설팅 설계 셀프웨딩부터 동행서비스까지 맞춤형 상품 대기업 계열사/제휴 인프라 연계 상품

대한민국 대표리조트기업 대명그룹 계열사

대명위드윈

결혼정보 & 웨딩컨설팅

결 혼 정 보 1588-3883

웨 딩 컨 설 팅 02)2017-7500



대명위드윈 소속 모델


 대명위드윈 대표인사

대명레저산업(2014 현재 대명리조트 국내 리조트 1위, 오션월드 세계 워터파크 4위) 대명홀딩스 | 대명건설 | 대명엔터프라이즈 | 대명코퍼레이션 | 대명라이프웨이 | 대명복지재단

결혼중개업 신고번호 : 서울-서초-국내-08-0013

대한민국 의료를 세계로

진료문의

1588-5700

謹賀新年

희망찬 을미년(乙未年) 새해를 맞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서울대학교병원 오병희 병원장 외 교직원 일동

SNU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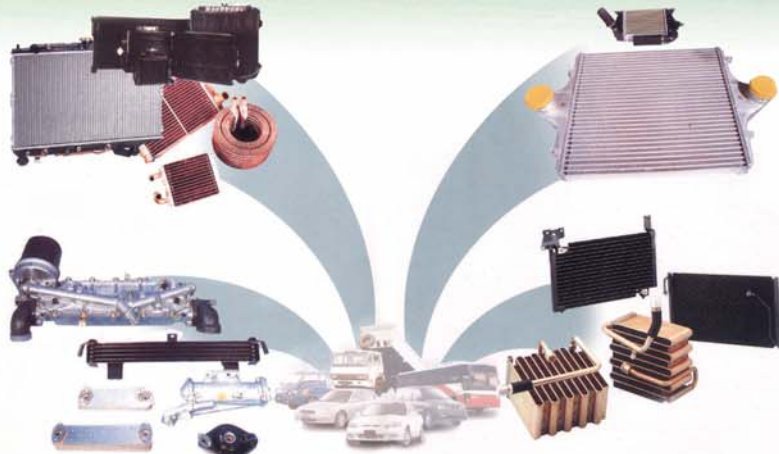
서울대학교병원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The background of the advertisement features a bright blue sky with a soft white arc and a lush green field. In the center, a large, stylized white 'S' logo is formed by two curved lines. Below the logo, various automotive air conditioning components are displayed, including radiators, condensers, and evaporators, arranged in a semi-circle. At the bottom, several cars are shown driving on a road.

최고의 기술과 품질을 자랑하는 삼성공조(주)



A collection of Samsung Air Conditioning products, including various models of radiators, oil coolers, inter coolers, and cooling modules, arranged in a semi-circle. Below the products, several cars are shown driving on a road.



회장 고훈곤

주요생산물품

- Radiator
- Oil Cooler
- Inter Cooler
- Cooling Module
- HVAC System



삼성공조주식회사

삼성발레오씨멀시스템스(주) (주)이승

재단법인 고산장학회 사회복지법인 고산

본사 경남 창원시 성산구 연덕로 176 / 대표전화: 055) 280-2700 / FAX: 055) 282-0821
서울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2길 21(동성빌딩 11층) / TEL: 02) 780-5761~4 / FAX: 02) 780-5765

콩트 릴레이

말세야, 말세

吳 鍾 權(법학65-69)
법무법인 새한양 변호사, 작가



전동차는 문을 열어 사람들을 쏟아 내고 나서 그만큼 도로 쓸어 담아 넣은 후 문을 닫았다. 노약자석에 두 자리가 비어 있었다. 뺑질이 청년이 일론 한 자리를 차지했다. 내, 그럴 줄 알았더니까. 귀뚜가 새 파란 녀석이 노약자석에 가 앉다니. 하지만 세상에는 저런 낮가죽 두꺼운 사람들이 잘 살긴 하지. 노인 세 명이 그 쪽으로 다가가자 여학생 한 명이 일어나서 자리를 비켜 주었다. 참하게 생겼네. 아직도 저런 애들이 있으니까 이 사회가 돌아가고 있는 거야. 그 옆에 앉아 있는 대학생인 듯이 보이는 더벅머리 총각이 고개를 있는 대로 떨어 뜨리고 자고 있었다. 셋 중 가장 덜 늙은

이는 표정에서 찾아드는 기력을 꼭 붙잡고 있는 인상이었다. 그가 노약자석으로 갔으나 아무도 일어서지 않았다. 후덥지근한 가운데 한 줄기 냉기가 스멀스멀 기어 나오는 것 같았다. 뺑질이는 맞은 편 창 밖을 응시하고 있었고, 더벅머리는 여전히 꿈의 인터넷 속을 헤매고 있는 것 같았다. 노인은 그들을 잠시 못마땅한 기색으로 내려다보고 있더니 돌연 벽력 같은 소리를 냈다. 질렀다. 냉큼 일어서지 못해? 한창 새파란 녀석들이 노약자석을 뚝 차지하고 앉아서 노인들을 세워 놓고 있다니, 이 녀석은 머리에 쇠뿔도 덜 벗겨진 것이 대낮부터 차 안에서 낮잠이야, 낮잠. 요런, 배워 먹지 못한 녀

이야. 여기 노약자석이라고 써어 있는 거 안 보여? 노인은 뺑질의 머리 위편에 써어져 있는 ‘노약자석’이라는 표시를 가리키는 손가락을 마구 흔들었다. 뺑질이는 싱겁게 실소를 터뜨리더니 말했다. 노약자석인 줄 누가 몰라요? 뭣, 이런 사람 보았나? 알면서도 뻔뻔하게 눈 딱 부릅뜨고 앉았구만. 아저씨는 해대는 걸 보니 노약자가 아니에요. 젊은이 못지않게 기력이 대단하시네요. 나는 마음이 몹시 병들어서 사실 약하단 말이에요. 심한 상처를 입어서 쓰러질 것 같은 말이에요. 이쯤 되면 승부가 점입가경이다. 결코 녹록지 않다. 노인은 의외의 강자를 만난 셈이다. 잠깐 움찔하는 듯 하더니, 어쩔, 핫기침을 크게 한 뒤 본격적인 공격의 연사를 퍼붓는 것이었다.

전동차 안은 패아닌 구경거리로 시끌벅적했다. 승객들의 얼굴은 일제히 이쪽을 향하고 있었으나, 반응은 제각각이었다. 지루하던 차에 잘 났다는 표정, 호기심을 잔뜩 실은 표정, 일행끼리 무슨 말을 주고받으며 이 승부를 점치는 듯이 끝끝거리면서 재미 있어 죽겠다는 표정, 집중력이 흐트러진 독서객들의 표정, 못마땅해하거나 짜증스러워하는 표정, 이 쪽을 한 번 힐끗 돌아보고는 이내 고개를 돌이키는 무표정한 표정 등 표정들의 전람회장 같았다.

나의 오른쪽 옆자리의 두 청년은 이제 그 싸움의 심판이 된다. 우리도 젊지만 요즘 젊은이나 학생들 가운데 뻔뻔한 자들이 많긴 많아. 그래도 저 젊은이는 대단하군. 아버지 뻔 되는 노인이 저 정도 설치면 더러워서도 비켜줄 일이지, 뭘 저렇게 버티긴 버터? 오기 싸움이지. 스스로 양보하는 것과 비키도록 강요당하는 것과는 영 판판이지. 저 노인네도 어지간해, 무슨 권리라든가 있는 것 같아. 가급적 노약자에게 자리를 우선적으로 양보하라는 것이지 당

당히 요구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그런 걸 따지면 뭘 하나?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는 경로사상이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것이지. 아무리 서구 문물이 많이 흘러 들어왔다 하더라도 노인을 공경하는 것은 인륜의 문제고 그건 좋은 거야. 선진 외국에서도 한국이나 동양의 경로사상은 칭찬한다잖아. 지금 어른들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있어. 한 사회에서 중추를 이루는 권위는 반드시 지켜져야 돼. 법으로써든 도덕으로써든 말이야. 법으로 강요하기 부적절한 경우라면 전통과 습속과 관습의 힘을 빌려서라도 지키도록 해야지. 옛날에는 동네에서 추방하기까지 했다잖아. 한 마을에서 불량배로 찍히면 어른들의 동네 회의에서 그 동네로부터 추방할 것을 결의해 내쫓는다는 게야. 그렇게 해서라도 질서와 인륜을 지켜야 하는 거야. 저 젊은 사람 아마 자기가 늙으면 예의범절 더 챙기고, 어른 노릇 더 하려고 들지도 몰라. 야, 네가 생각보다 보수적이네. 어른이니 권위니 따지다가 발전이 늦어진 게 한국의 역사요, 동양의 역사야. 모든 분야에서 무질서하지 않을 정도의 자유로운

흐름은 좋은 거야. 우선 혼란스러운 것 같이 보여도 자체 속에서 질서를 저절로 찾아가게 마련이야. 이 친구, 내가 보수적이라서 그런 게 아니야. 내가 고리타분하게 연애결혼을 상놈들이나 하는 짓으로 매도하고 중매결혼을 더 선호하는 사람인 줄 아냐? 사안별로 다른 거야. 어떤 부면에서는 진보적이라고 볼 수 있는 사상을 지지하다가도 다른 어떤 부면에서는 반대로 보수적이라고 볼 수 있는 사상을 지지할 수도 있어. 그걸 결코 모순이라 할 수 없지.

뺑질이는 여태 자리에 딱 버티고 앉아서 있는 노인에게 한 치의 양보도 없이 가루고 있었다. 서로의 어성이 높아지고 있었다. 노인은 마침내 샷대질을 해대면서 뺑질을 일으켜 세우려고 하고 있었다. 나, 원, 80 평생에 이런 상놈은 처음 보네. 지애비도 앞에 세워 놓고 자기는 앉아 있을 놈일세. 아무리 나이가 많지만 말씀 좀 삼가시오. ‘놈’이 뭘요, ‘놈’이. 너 이놈아. 도대체 나이가 몇 살이나 되노? 남의 나이는 알아서 뭣 하시려오? 나도 나이는 먹을 만큼 먹었수다. 나이를 먹을 만큼 먹었다구? 나이를 똥구멍으로 먹었냐? 이쯤 되니 승객들 가운데서도 불평의 소리가 터져 나왔다. 거 좀 조용히 합시다. 둘 다 똑 같아요, 똑 같아. 둘이 내려서 싸우시오. 일반석에 앉아 있던 젊은 남자는 발뽕 일어나서 소리 질렀다. 할아버지, 이 자리에 앉으세요. 젊은 놈이 앉아 있자니 궁둥이에 바늘이 돋는 것 같아서 도저히 못 견디겠소. 그 노인은 뜻밖의 복병을 만난 듯 약간 당황하더니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이 새로운 적을 향해 불을 뽕기 시작했다. 자네도 젊다고 젊은 놈 편 드는 거야? 내가 자리가 탐나서 이렇게 열을 내고 있는 줄 알아? 내가 이래 배도 기력이 생생해. 종점까지도 서서 갈 수 있어. 다만 노약자석에 노인을 세워 둔 채 새파란 젊은 놈이 앉아 있으니 그러는 거야. 왜 끼어 들어? 노인은 창에 찢린 투우처럼 씩씩대며 좌충우돌할 기세였다.

마침 열차가 정거장에 서면서 문이 열렸다. 뺑질이와 더벅머리가 약속이라도 한 듯이 함께 내렸다. 노인은 그들의 뒤를 쫓아 두어 걸음 내딛다가 주춤했다. 전동차의 문이 닫혔다. 노인은 갑자기 적수들이 사라지자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듯 멍청해져서 문밖을 향해 어깨를 들쭉거리며 분을 삭이고 있었다. 도대체 학교에서, 가정에서 뭘 가르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 공중도덕이 이렇게 땅에 떨어지고 말았으니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될러노? 말세야, 말세. 어조는 가리았고 있었지만 아직 분이 덜 풀린 채 혼잣말을 하고 있었다. 노인은 자리에 앉으면서 여기저기 둘러보며 동의를 구하는 듯한 얼굴이었으나 아무도 그를 쳐다보지 않고 있었다.

시끄럽다가 갑자기 조용해진 것에 미처 익숙해지기도 전이었다. 그동안 나의 왼편에서 말 없이 앉아 있던 젊은이가 기다렸다는 듯이 손바닥만한 종이를 나에게 건넸다. 정말 말세예요, 말세. 말세에는 ‘자기를 사랑하고 무정하고 사납다’고 성경에 예언돼 있어요. 하지만 말세에 이어서 이 그림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지상낙원이... 나는 얼떨결에 그 종이를 받고 나서 손을 저었다. 알겠어요. 나중에 읽어볼게요. 저 사람들 때문에 좀 괴근해서. 그리고 나는 눈을 감았다. 느닷없이 방금 힐끗 본 그림이 떠올랐다. 그것을 애써 지우고 다른 생각을 하려 해도 그 그림이 자꾸 떠올랐다.

“

귀뚜가 새 파란 녀석이 노약자석에 가 앉다니. 하지만 세상에는 저런 낮가죽 두꺼운 사람들이 잘 살긴 하지.

도대체 학교에서, 가정에서 뭘 가르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 공중도덕이 이렇게 땅에 떨어지고 말았으니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될러노?”

”



일러스트레이터 蘇余廷 (디자인09-13)

노인 한 명이 서 있었다. 뺑질이는 창 밖으로 고개를 돌리고 있었다. 나는 뺑질의 먹살을 붙잡아 일으키고 싶었다. 아니야, 뺑질뺑질한 인상으로 보아하니 호락호락 일어설 것 같지 않아. 당차게 대들 거야. 그러다가 내가 봉변을 당하고 말겠지. 사실 나도 젊은데 내가 무슨 일어나라 마라 할 권한이 있어? 참자, 참아. 아니지, 저 자는 착하고 있는 학생을 깨워서 일으켜야겠네. 밤에 뿔하고 이 벌건 대낮에 저렇게 고개를 쳐박고 자누? 틀림없이 인터넷에서 게임을 했든가 포르노에 빠져서 밤을 온통 하얗게 샀든가 둘 중 하나일 거야. 내가 대학 다닐 때는 이따금 시험 준비하느라고 밤을 새운 일이 있었지. 요즘은 그런 녀석들은 없을 거야. 잘 생각하는 건지 모르지. 공부 아무리 열심히 해 봐야 잘 사는 것과는 직결되지 않으니까 말이야. 나처럼 학교에서 1, 2등을 줄곧 다투어 왔건만 입에 풀칠하기도 힘들니 누가 공부 잘하려고 하겠느냐 말이야.

다음 정거장에서 허리가 꼳꼳한 노인 한 사람이 탔다. 일흔쯤 돼 보였으나 얹해 보

석들 같으니라구. 뺑질이는 어이없어하라는 표정으로 입까지 벌리고 노인을 뻔히 쳐다보고 있었다. 더벅머리는 고개를 쳐들면서 눈을 뜨고 입가에 지르르 흐른 침을 손등으로 쓱 닦으면서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광경을 이해하려고 애쓰는 눈치였다. 노인을 두 사람이나 세워 놓고 앉아 있긴, 이래도 일론 일어나지 못할까? 뻔히 쳐다보긴 뭘 쳐다봐? 적 보면 몰라? 노인은 한 발을 쿵 하고 구르면서 노기를 뽐내었다. 더벅머리는 그제야 사태를 짐작하고 천근 같은 엉덩이를 들어 올리고 있었다. 노인은 전리품을 얻은 듯한 득의의 표정으로 먼저 서 있던 다른 중늙은이에게 그 자리를 권했다. 그 노인은 얼떨떨해하면서 사양하다가 떠밀리듯 자리에 앉으면서도 상하좌우를 살피는 품이 별로 편치 못한 모양이었다.

절반의 승리를 거둔 노인은 여세를 몰아 뺑질이에게 한 걸음 다가가서 노기를 고조시키기 시작했다. 아, 이 사람아. 노인네를 처음 봤나. 눈 하나 깜짝 않고 뭘 그렇게 올려다보고 있어? 뭘, 신기한 동물이라도 봤냐? 냉큼 일어서서 자리를 비키란 말

동 정

수 상

▲朴順女(영어교육50졸 소설가)=지난 12월 17일 사단법인 한국문인협회로부터 제51회 한국문학상 수상.

▲沈竹子(회화49-55 한국미술협회 회원)=지난 12월 5일 제8회 대한민국 미술인의 날 기념식에서 대한민국 미술인상 본상(서양화 부문) 수상.

▲丁海楠(농경제55-61 시인·수필가)=지난 12월 17일 국제문화예술협회로부터 제18회 매월당 문학상 본상(시 부문) 수상.

▲尹明老(회화56-60 모교 서양화와 명예교수)=지난 12월 5일 제8회 대한민국 미술인의 날 기념식에서 대한민국 미술인상 본상(서양화 부문) 수상.

▲洪承昊(불문57-62 前駐자이르 대사·시인)=지난 12월 12일 서울 방학동 김수영문학관에서 제9회 도봉문학상 수상.

▲嚴泰丁(조소58-64 모교 조소과 명예교수)=지난 12월 5일 제8회 대한민국 미술인의 날 기념식에서 대한민국 미술인상 본상(조각 부문) 수상.

▲李炳勳(의학60-66 대한의사협회 고문)=최근 열린 2014년 서울국제발명전시회에서 정보통신 및 의료가 부문에 출품한 세 가지 공동발명 특허로 금상, 동상, 준대상 수상.

▲卜鉅一(상학63-67 문화미래포럼 대표·소설가)=지난 12월 3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선정한 제25회 시장경제대상 공로상 수상.

▲潘基文(외교63-70 유엔 사무총장)=지난 12월 2일 미국 하버드대에서 2014년 올해의 인도주의자상 수상.

▲宋弼鎬(경제68-72 중앙일보 회장)=지난 12월 10일 한국언론인연합회로부터 자랑스러운 한국인대상(언론경영 부문) 수상.

▲俞香淑(약학68-72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명예연구원)=지난 12월 16일 제14회 올해의 여성과학기술자상(진흥 부문) 수상.

▲李芙淵(응용미술71-75 한양대 교수)=최근 특수교육 국정 교과용도서 편찬개발사업에 기여한 공로로 교육부장관 표창 수상.

▲吳秉熙(의학71-77 모교 병원장·대한심장학회 이사장)=지난 12월 10일 한국언론인연합회로부터 자랑스러운 한국인대상(의료발전 부문) 수상.

▲盧桂燮(국어교육72-76·경영74-79 비전경영연구소 대표·시인)=지난 12월 19일 한국현대시인협회로부터 제37회 한국현대시인상 수상.

▲曹圭楠(조선공학72-76 홍익대 교수·해양수산 미래기술위원장)=지난 12월 18일 해양수산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홍조근정훈장 수훈.

▲孫錫源(화학공학72-79 삼성토탈 사장)=지난 12월 16일 한국제안활동협회가 제정한 한국아이디어경영대상(화학 부문) 수상.

▲朴明潤(보대원74-76 한국보건영양연구소 이사장·관악회 이사)=지난 12월 5일 대한보건협회로부터 제28회 보건대상 수상.

▲金容直(법학74-78 법무법인 케이씨엘 변호사·한국자폐인사랑협회장)=지난 12월 16일 법조협회로부터 제13회 법조봉사대상 수상.

▲車相均(전기공학76-80 모교 전기정보공학부 교수·빅데이터 연구원장)=지난 12월 5일 '초연결 창조한국 비전 선포식'에서 근정포장 수상.

▲金永洙(공업화학78-82 모교 의공학교실 교수)=지난 12월 17일 보건 의료기술 진흥유공자 시상식에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보건 의료기술 우수연구 부문) 수상.

▲鄭昇溶(의학83-89 모교 외과학교실 교수)=지난 12월 13일 대한암연구재단이 개최한 제23회 서울국제암심포지엄에서 '金鎭福암연구상' 수상.

▲金玄基(경대원90-92 중앙일보 도교특과원)=지난 12월 1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관훈연론상(국제 보도 부문) 수상.

▲李世洛(AMP 45기 대원기업 회장·민주평통 상임위원)=지난 12월 19일 평화통일기반조성과 국가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국민훈장 석류장 수훈.

▲崔鴻圭(교대원65-67 중앙대 명예교수·교대원 동창회장)=지난 12월 2일 세계 숲 보전 협회(ACWF) 창립대회에서 초대 회장에 선임.

▲李水彰(수의학67-71 前삼성생명 사장)=지난 12월 9일 임기 3년의 생명보험협회 제33대 회장에 취임.

▲成相哲(의학67-73 모교 정형외과학교실 명예교수)=지난 12월 1일 임기 3년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임명.

▲安炳燦(신대원71-75 언론인권센터 명예이사장·사단법인 문화기획학교 상임 고문·본보 논설위원)=지난 1월 5일 아시아N총괄고문에 선임.

▲河永求(무역72-76 前한국씨티은행장)=지난 12월 1일 임기 3년의 전국은행연합회 제12대 회장에 취임.

▲吳永鎬(화학공학72-80 前KOTRA 사장)=지난 12월 15일 한국공학한림원 정기총회에서 2년 임기의 회장에 선출.

▲任太熙(경영76-80 前고용노동부장관·前대통령실장)=지난 12월 17일 한국정책재단 제2대 이사장에 선출.

▲姜結求(기계설계77-81 건국대 교수)=지난 12월 5일 한국로봇학회 정기총회에서 회장에 선임.

▲姜日源(법학78-82 헌법재판소 재판관)=지난 12월 13일 세계적인 헌법연구자 문기구인 베니스위원회 산하 헌법재판공동위원

인 사

New

허니시리즈를 소개합니다.

많이 생산되지 못해 고객님의 호기심을 자극해서 죄송합니다
더 달콤하게, 더 부드럽게
취향따라 골라드릴 수 있게 준비했습니다

허니버터칩

허니통통

자가비

회 위원장에 선출.

▲朴炳國(전자공학82졸 모교 전기정보공학부 교수)=지난 1월 1일 임기 1년의 대한전자공학회 제45대 회장에 취임.

▲朴鍾普(법학79-83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장)=지난 12월 5일 한국변법학회 제21대 회장에 취임.

▲任善河(대학원 79-84 前현대창의성연구소장)=최근 학생들의 방과후 활동을 지원하는 서울시 교육·복지종합지원센터 센터장에 위촉.

▲宋基春(법학80-84 전북대 교수)=지난 12월 12일 한국공법학회 정기총회에서 제34대 회장에 취임.

▲黃喆奎(사법83-87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최근 국제검사협회(IAP) 총회에서 아시아·태평양담당 부회장에 선출.

▲張明宇(치의학83-89 하버드대 교수)=최근 미국 하버드대 출신들의 학술단체인 Harvard Odontologic Society 명예회원에 추대.

▲許文明(가정관리86-90 동아일보 오피니언팀장·본보 논설위원)

=지난 12월 27일 동아일보 국제부장에 선임.

▲金斗哲(SGS 3기 서울시환경협의회 초대 의장·친환경발명가)=최근 의정신문 발행인·편집인(이사장)에 선출.

행 사

▲李吉女(의학51-57 가천대 총장·가천문화재단 이사장·본회 부회장)=최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전국 각지의 효녀들을 발굴해 제16회 심정효행대상 시상식 개최.

▲禹仁性(기계공학58-62 인터비즈시스템 회장·본회 부회장)=지난 12월 26일 서울 롯데호텔 댐뷰룸에서 인터비즈시스템 창립 25주년 기념식 개최.

▲申秀貞(기약59-63 모교 기악과 명예교수·피아니스트·음대동창회장)=지난 12월 30일 서울 서초동 모차르트홀에서 슈베르트 '겨울나그네'로 송년음악회 개최.

▲李玉姬(기약60-64 서울튜티앙상블 이사장·피아니스트)=최근 서울 예술의전당 IBK챔버홀에서 서울튜티앙상블 제57회 정기연주회 개최.

▲孫文子(응용미술62-66 홍익회 고문)=지난 12월 25~29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14년 서울아트쇼에 출품.

▲咸鍾漢(농업교육63-70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회장)=지난 12월 16일 서울 방화동 국제청소년센터에서 창립 49주년 기념식 및 청소년육성대상 시상식 개최.

▲張明奉(행정63-72 국민대 명예교수·북한법연구회장)=지난 12월 22일 서울 뉴국제호텔에서 '남북교류협력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을 주제로 월례발표회 개최.

▲李圭碩(지구과학교육66-73 한국과학교육단체총연합회장)=지난 11월 25일부터 12월 4일까지 과학교육전문직 선진과학

해외연수 실시.
▲安智煥(성악73-77 그랜드오페라단 단장)=지난 12월 20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푸치니 오페라 송년 갈라콘서트 '올댓 푸치니, 올댓 오페라' 개최.

▲李載勳(경제74-78 한국산업기술대 총장)=지난 12월 19일 경기도 시흥시 한국산업기술대 아트센터에서 개교 17주년 기념

행사 개최.

▲申榮吉(계산통계78-82 모교 컴퓨터공학부 교수·소프트웨어혁신포럼 위원장)=지난 12월 11일 서울대 글로벌공학교육센터에서 대학 소프트웨어교육 혁신방안 발표회 개최.

▲李炳政(언어81-88 모교 영어교육과 교수)=최근 표류하는 대한민국 영어의 해법을 제시한 '당신의 영어는 왜 실패하는가?'(우리학교) 출간.

▲조정민(기약99-03 콘트라베이스리스트)=오는 1월 23일 서울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에서 보테시

니, 타바코프 등의 작품으로 콘트라베이스 독주회 개최.

▲최은영(기약00-04 피아니스트)=오는 1월 21일 서울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에서 구바이둘리나, 슈만 등의 작품으로 피아노 독주회 개최.

▲황지인(기약01-05 피아니스트)=오는 1월 20일 서울 금호아트홀에서 베토벤, 라흐마니노프, 라벨 등의 작품으로 귀국 피아노 독주회 개최.

■삼가 명복을 빕니다■

▲金敎命(의학41-47 前한강성심병원장)=12월 25일 별세(92세)
▲玄鷹島(의학45-51 가톨릭대 명예교수)=12월 9일 별세(85세)
▲朱貞一(가정교육46입 前숙명여대 교수)=12월 3일 별세(87세)
▲鄭載東(기약48-52 前서울시향 삼민지휘자)=12월 17일 별세(86세)
▲沈昞求(경제49-53 모교 명예교수)=12월 13일 별세(85세)
▲李海元(행정49-53 前보건사회부 장관)=12월 11일 별세(84세)
▲李明馥(체육교육49-55 前국민대 교수)=11월 15일 별세(85세)
▲金鍾結(행정53-60 제너럴휴먼리크루트 고문)=12월 4일 별세(81세)
▲康京洙(상학55-61 前삼성화재 대표)=12월 6일 별세(79세)
▲愼鏞泰(응용미술59-64 前중앙대 교수)=12월 16일 별세(74세)
▲權重普(경제59-66 前한화 전무)=12월 20일 별세(73세)
▲李敬遠(농경제61-65 재단법인 송암 이사장)=12월 22일 별세(71세)
▲朴在文(교육61-66 충북대 명예교수)=12월 3일 별세(73세)
▲白賢基(화학교육62-66 흰돌교회 목사)=12월 18일 별세(73세)
▲諸葛隆佑(법학64-68 변호사)=12월 28일 별세(69세)
▲朴武烈(영문73졸)=12월 20일 별세(65세)
▲金基元(경제72-76 한국방송통신대 교수)=12월 7일 별세(61세)
▲南景太(사회80-84 前도서출판 새길 기획위원)=12월 23일 별세(53세)
▲夏聖奉(독문80-87 前한겨레신문 기자)=12월 21일 별세(54세)

‘동정’난은 동문 여러분의 공간입니다. 많은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매달 24일 이전에 보내주시면 다음달 동창회보에 게재됩니다.

-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 연구공원 416호
- e메일 : snua1969@naver.com 또는 snua@korea.com
- 전화 : (02)886-2219
- 팩스 : (02)886-2218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최고산업전략과정 Advanced Industrial Strategy Program

1.교육주제

“기술경영혁신” “정보지식경영” “조직변화 리더십” 추구

- 창의적 기술경영과 과학적 의사소통을 겸비한 도전적 최고경영자의 핵심역량 개발
- 공학기술의 이해와 신성장동력 기획의 인식
- 조직문화의 혁신과 고객가치의 실현을 위한 종합적 리더십 개발
-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300여 교수 및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최고 강사진의 차별적 교육 콘텐츠

2.교육내용

- 첨단공학기술의 이해(IT, BT, NT, CT 등의 신성장동력 기술 중심)
- 혁신경영과 산업전략의 이해
- 참여를 바탕으로 한 실사구시 창의력 개발
- 경제환경과 사회 및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인식
- 국내외 workshop, 산업사찰 및 가족특강 등 각종 특별 프로그램

3.모집인원 : 50명 내외

4.특전

- 서울대학교 총장 수료증 수여 및 총동문회 동문자격 부여
- CEO, 국회, 사법, 검찰 및 행정부 고위 간부등으로 구성 2,700여명 규모의 AIP동창회 가입
- SNU공학 컨설팅 센터와 협력하여 공과대학 교수들이 참여하는 기술 사업화, 기술 자문, 기술

감정 등 4개 사업분야에서 중소/중견기업, 기술 혁신형 벤처 기업, 대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산학 협력 제공

- 정부출연연구소, 중소기업청,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등과 유기적 연대

5.입학자격

- 기업의 경영자 및 임원, 정부 각 기관 고위공무원(국정급), 법원/검찰 부장판사/검사, 정부출연 연구소 및 연구기관의 고위 연구원, 각 군 장성급 장교, 기타 주요기관의 기관장

6.수업시간 : 오후 6시 ~ 9시 10분

- 수업기간 : 2015년 3월 4일(수) ~ 2015년 8월 14일(금)

- 수업장소 : 서울대학교 엔지니어하우스 산학강의실

7.원서접수

- 2015년 1월 30일(금)까지

8.접수 및 문의처

- 방문접수 :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1 서울대학교 310동 엔지니어하우스 B101호
- 온라인접수 : AIP홈페이지(<http://aip.snu.ac.kr>)에서 접수
- 연락처 : T)02-880-7021 / F)02-888-9466
- E-mail : aip@snu.ac.kr
- Homepage : <http://aip.snu.ac.kr>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장




붉은 햇살, 맑은 공기 먹고 자란 청정 자연의 명품 -

청송 사과·청송 고추





청송에 굴뚝 연기 나는 공장이 한 곳도 없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울울창창한 푸른 숲과 맑은 공기, 그리고 붉은 햇살만이
청송의 대지를 가득 적십니다.

청송의 청정자연 속에서 순박한 농민들의 땀을 먹고 자랐습니다.
농식품파워브랜드대전 대통령상에 빛나는 청송사과,
청양고추의 유래가 된 청송고추.

건강을 지키는 자연을 담았습니다.



구입문의 : 청송사과유통공사 054-873-3200, 874-4040



청송군



Seoul
National
University
SNU








21세기 한국을 넘어 세계를 밝히는 리더.
아름다운 자연속에 첨단 기술로 빛어 올린 세계 최고의 캠퍼스

서울대학교총동창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SYTD 신영기술개발
DHC 두한중합기술

품질과 신뢰를 큰 자존심으로 여기며,
모든 일에 최고가 되겠다는 마음으로 열과 성의를 다하여
언제나 신뢰 할 수 있는 회사가 되었습니다.



정직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윤리경영
시공에 앞서 자연과 환경을 생각하는 환경경영
보다 변화하고 진취적인 가치경영





교량점검시설 교량배수시설 방음시설 차량방호책 AL난간 가드레일 철물공사
생태복원SS공법 식생매트 코아넷 거적덮기 암질개면보호식재공 조경공사
터널통기구 전기공사 영구앵커공사 지반고결제 PBD 기타공사

14, Byeoryangsangga 2-ro, Gwacheon-si, Gyeonggi-do, Korea T. +82.2.504.0350 www.shinyoungtech.co.kr

신 간

■ 집

— 池 淳·元正洙 지음



간 삼건 축 상임고문인 元正洙(건축 53-57)·池 淳(건축 54-58) 부 부는 한국 건축의 태동으로부터

거장의 시대를 거쳐 파트너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한국 건축의 역사를 이끌어 온 산증인이다. 이 책은 이들 건축가의 50년 건축 여정을 '집'의 관점에서 정리한 것으로 한국 사회의 변화상에 따른 주택의 변화를 실제 건축 사례와 함께 실었다.

또 1960년대 초반부터 현재까지의 다양한 건축 활동 가운데 돌이켜 볼만한 주택 건축의 실 사례를 한데 모았다.

마지막으로 미래 주택이 가야 할 길과 젊은 건축가들에게 바라는 바를 나열해 놓았다. <간삼건축刊·값18,000원>

■ 타오르는 강물

— 洪承昊 지음



駐 자이르 대사를 지낸 洪承昊(불문 57-62 필명 洪天安)동문이 그동안 창고 속에 쌓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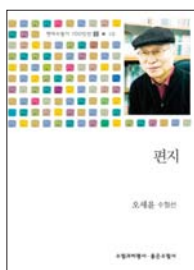
뒀던 여러 시들을 묶어 한 권으로 펴낸 시집.

이 시집에는 답답한 어조로 계절의 흐름과 시간을 유영하며 삶의 근원에 천착하고자 저자가 써 내려간 시편들이 담겨 있다. 흘러가는 것들에 대한 시인의 간명하고 절제된 시선이 돋보이는 시집이다. 작품에서 그려낸 섬세하고 깊은 삶의 표정과 풍경의 감각들을 만나볼 수 있다.

노을에 젖어가는 순간, 타오르는 강물은 마냥 흘러간다. 흐르는 세월 잡지 못하는 시간 앞에서 '타오르는 강물'은 미련 없이 떠나보내야 하는 것들에 대해 고요하게 속삭여준다. <책나무刊·값8,000원>

■ 편지

— 吳世鈞 지음



한국 산문 편집고문, 한국의사수필가 협회 고문 등을 지낸 吳世鈞(의학 59-65) 동문이 수필 과비평

사·좋은수필사에서 펴낸 '현대수필가 100인선II'의 열 번째 문고 판 수필집.

고향을 북에 두고 남한으로 내려와서 의사로 살았던 작가는 다양한 소재를 찾아서 인간미 넘치는 수필을 쓰고 있다. 작가의 내면에 흐르는 인간을 향한 애정이 묻어난다.

이번 작품에는 '사나이로 태어나서', '방학동 은행나무', '난향', '만국기 소녀', '아버지의 찢레꽃', '도드람산', '정육점', '막걸리' 등 29편이 실려 있다. <수필 과비평사·좋은수필사刊·값7,000원>

■ 경제 안녕한가

— 金鎮銅 지음



한국일보 기자, 일간스포츠 편집국장, 서울경제신문이사·주필 등을 지낸 내일신문 金鎮銅(국문58-64 본보 논설위원)논설고문이 신문기자 50년을 기념해 경제 時評·칼럼집을 펴냈다.

金동문은 이 책의 머리말에서 “나는 경제학자도 경제전문가도 경제인도 아닌 경제기자의 시각으로 경제 현상을 분석하고, 정책을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려고 애썼다”며 “나를 기자로 키워준 한국일보에서 배운 대로 춘추필법 정신에 충실하려 했다고 감히 자부한다”고 말했다.

90여 편의 주제별 글 마디 끝마다 집필 연월을 부기해 그 시점의 경제상황과 흐름, 정부 정책 방향 등을 되짚어 볼 수 있게 했다. <정은출판刊·값16,000원>

■ 비와 나무와 하늘과 땅

— 金 哲 지음



이 책 서두에는 金東吉박사,李德姬여사(평전 전해린 작가), 조선대 영어영문학과 데이비드 셰퍼교수의 축하 메시지가 실려 있다.

1백여 편의 시가 영어, 불어, 일어 등의 번역과 함께 여백 없이 연속적으로 인쇄돼 있는 이 시집에는 詩論과 시조, 한시, 흘러간 노래, 6·25전쟁 때 학도병으로 싸우다 전사한 16세의 중학생 이우근 군의 편지, 퍼시 B. 셸리의 시 'Good-Night' 등이 영역과 한역으로 소개돼 있다. <푸른별刊·값15,000원>

■ 星湖와 星湖學派

— 琴章泰 지음



모교 종교학과 琴章泰(종교 62-66) 명예교수가 조선시대 사상사의 중심축을 이루는 道學과 實學과 西學이 서로 연결되고 상충하는 구조를 '성호와 성호학파'의 실학사상을 통해 밝히고자 시도한 책.

星湖 李 瀾은 주자학·퇴계학의 확고한 계승자이면서 실학적 관심과 사유의 방향을 열어준 인물이라는 점에서 道學과 實學의 두 날개로 18세기 전반기에 실학사상을 주도했던 인물이다.

그는 도학의 사유 속에서 실학적 관심의 논리를 찾아냈다. 여기서 그는 당시 중국을 통해 전래해온 예수회의 '西學'에서 천주교의 신비적인 교리는 비판하고 서양과 학기술을 적극 수용하는 자세를 보여줬다. <서울대출판문화원刊·값20,000원>

■ 내 삶의 旅情을

— 朴大根 지음



지난 2010년 11월 '새 한국 문학'을 통해 수필가로 등단한 서울성인병상담연구원 朴大根(보대원63-65)원장의 자전적 회고록.

전편, 중편, 후편으로 나뉘어 이 책에 60여 점의 작품을 담았고, 속편에는 부모, 형제,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글, 밀양박씨 부사공과 世系表, 연보 등을 실었다.

차동문은 이 책 말미에서 “삶은 그 순간 순간이 아름다운 마무리이자 새로운 시작이어야 한다”며 “자신의 처지와 분수 안에서 만족할 줄 아는 참된 自我로 오늘 하루를 살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푸른향기刊·비매품>

■ 농사짓고 장사하고

— 宋基豪 지음



모교 국사학과 宋基豪(국사 75-81)교수의 '우리역사읽기' 시리즈의 넷째 권이다. 2009년 말 세 권('이 땅에 태어나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말 타고 종부리고')을 발간한 데 이어 거의 5년 만에 그 후속으로 다시 발간하

공연

■ 吳世一 작품 발표회

— 1월 30일 영산아트홀



서울 영산아트홀에서 작품 발표회를 갖는다.

미국 텍사스 오스틴 주립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吳世一은 이날 '그대 그리움', '뮤즈에게', '개개비 연가', '봄 새버리' 등 10여 개 작품을 선보인다. <공연문의:에인예술기획 586-0945>

■ 한지은 & 임남희

피아노 듀오 리사이틀

— 2월 4일 예술의 전당

피아니스트 한지은(기악94-98 국민대 교수)동문(사진左)과 임남희(기악95-99 한국리스트협회 회원)동문(사진右)이 2월 4일 오후 8시 서울 예술의 전당 리사이틀홀에서 피아노 듀



오 리사이틀을 연다.

미국 이스트만 음대 박사출신인 두 동문은 이날 연주회에서 라흐마니노프, 슈베르트, 뒤카, 피아졸라, 볼콥 등의 작품을 열연한다. <공연문의:에인예술기획 586-0945>

■ 박경화 & 한지현

피아노 듀오 콘서트

— 2월 8일 예술의 전당



바이올리니스트 박경화(기악04-08)동문(사진左)이 피아니스트 한지현 씨와 2월 8일 오후 2시 서울 예술의 전당 리사이틀홀에서 피아노 듀오 콘서트를 개최한다.

독일 프라이부르크 국립음대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한 박동문은 이날 그리그, 프로코피예프, 시마노프스키, 슈만 등의 작품을 공연한다. <공연문의:에인예술기획 586-0945>

게 됐다.

이 책은 사농공상 가운데 농업과 상업에 초점을 두고, 행정과 형벌을 추가했다. 저자는 이 책에서 농사와 행정, 법과 처벌 등을 다루면서 농사와 곡물, 농지와 소, 밭농사와 논농사, 삼배와 쌀, 전세와 공물, 요역과 군역, 처벌과 처형 등을 주제로 해서 과거에서 현재를 넘나들며 이야기를 들려준다. <서울대출판문화원刊·값19,000원>

■ 우리 그림, 그려볼까요?

— 申夏淳 외 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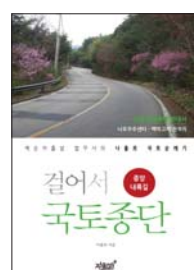
모교 동양화와 申夏淳(동양화 83-91)교수,崔德仁(동양화 90-94)·安智妍(동양화 00-04)강사, 서울예고 崔憲慧(동양화02-07)강사 등이 우리 미술에 대해 알고 싶어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감을 잡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한 안내서를 펴냈다.

네 명의 저자가 각각 자신의 작업에 맞는 장르를 하나씩 골라 집필한 책으로 재료에서는 수묵화와 채색화, 주제에서는 산수화와 문

인화로 나눠 구성했다. 각 장에는 작업을 시작하기 위해 생각해 봐야 할 점과 함께 재료 소개와 제작 과정을 담았다. <서울대출판문화원刊·값12,000원>

■ 걸어서 국토종단

— 李鍾浩 지음



도보여행가 李鍾浩(AIP 31기)동문이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부터 강원도 철원의 백마

고지 전적지까지 6백23km에 이르는 길을 직접 걸으며 그 자료를 모은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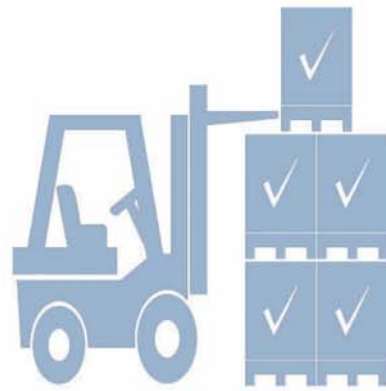
69세의 저자는 도보계획을 세우면서 수집했던 교통정보, 숙박정보, 식사정보와 도보길에 대한 정보를 실었으며 아름다운 대한민국 산하의 모습을 담으려고 노력했다. 서울동부지방법무사회 회장인 李동문은 이 책에서 “많은 사람들이 국토 종단을 통해 내 조국 내 국토에 대한 사랑이 커지고 나라사랑이 자라서 살기 좋은 우리나라를 이룩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식과감성刊·값16,000원>

◆수출입화물 운송

◆ 내륙운송

◆ 보세운송

◆ 보세창고



수출입 화물 운송은 **1599-4722**



인천 중구 공항동로 295번길 77-8 B-208(운서동, 인천항공화물터미널)
Tel : 1599-4722 FAX :032-744-4742

www.gopkorea.com

Best Quality

태성철강주식회사는 최고의 품질만을 공급합니다.



www.taesungsteel.co.kr

TSSC 태성철강

태성철강은 창립 이래 철강류 제품 유통 및 물류사업, 무역사업과 동반 성장 업체와의 상호 협력을 통해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건실한 기업입니다.



H형강



I형강



강널말뚝



무늬복공판



이형철근



철판



C형강



Z형강



C형강

태성철강주식회사 대표이사 배 원 섭

본 사 - 인천시 중구 신흥동3가 7-308 정광씨팰리스 B동 921호
1하치장 - 인천시 서구 원창동 394-1 / 2하치장 - 인천시 중구 항동 7가 27-104
TEL : 032-579-1137~9 FAX : 032-572-1137



Manufacturer of Micro-prismatic Reflective Materials

안전을 생각합니다!



TRAFFIC SAFETY



DIGITAL PRINTABLE MEDIA

REFLOMAX

(주)리플로맥스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푸른들판로 1010번길 76
TEL : 031-8014-9700 FAX : 031-8059-2130

21세기 한국을 넘어 세계를 밝히는 리더!

아름다운 자연속에 첨단 기술로 빛어 올린 세계 최고의 캠퍼스



서울대학교총동창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운호엔지니어링(주) 대표이사 정 재 훈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 유니슨이 선도해 나갑니다.

유니슨은 풍향조사에서부터 단지설계, Financing, 풍력발전기 개발 및 생산, 발전단지 건설 및 운영까지 풍력산업 전반의 노하우를 갖춘 대한민국 풍력발전 선도기업입니다.

〈유니슨 생산제품〉



750kW풍력발전기



2MW풍력발전기



타워



www.unison.co.kr

〈유니슨 국내외 풍력발전단지 전경〉



강원풍력발전단지(2MW, 49기)



안산누에섬 (750kW, 3기)



영흥도(2MW, 37기)



Seychelles (750kW, 87기)

유니슨주식회사
UNISON Co., Ltd.

대한민국 제조업의 '복정(鰻井)'이 되겠습니다.

경상남도 함안군 산인면 모곡리 580번지.
여기에는 고려왕조에 충정을 간직한 이들이 모여 살던 고려동마을이 있습니다.
고려동마을의 자랑거리는 당시부터 길어 마신, 그리고 지금까지 620년 세월이 지나도 마르지 않는 우물 '복정'입니다.
정성으로 하늘을 감동 시킨 전설도 함께 깃든, '복정(鰻井)'.
대한민국에는 100년을 넘기는 기업이 흔치 않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국산업단지공단은 대한민국 기업과 제조업도 100년을 바라보며 지속적인 성장을 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전국 1033개 산업단지, 8만여 입주 기업을 위한
마르지 않는 100년 우물이 되겠습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
Korea Industrial Complex Corporation

모교 사랑은 동창회비 납부로

평생 회비 : 2014년 11월 납부자 / 연회비 : 이사 (2014. 9. 24 ~ 12. 19) · 일반 (2014. 9. 24 ~ 12. 26)
원내 숫자 : 입학년도 (미확인시 졸업년도) - 특별과정은 기수 표시

회 장 단

△부회장 卞柱仙= 1백만원
△부회장 金基炳= 1백만원
△부회장 文亨柱= 1백만원

상임이사

△南善顯 안대원동창회장= 20만원
△朴熙熙 AMPFRI동창회장= 20만원
△崔巨勳 ASP동창회장= 20만원

평생회비

(이사) △김정기 사대74
△민화식 공대71 △박금남 약대86
△박연선 미대93 △오경숙 생활82
△유옥주 공대82 △이기는 미대82
△이주선 공대64 △정영호 AMFR30
△차도원 ACAD76 △한정훈 공대85
△허삼남 농대68 △현준녀 AMFR20

(일반) △강금석 공대88
△강병록 SGS20 △강신복 사대62
△강현석 공대69 △곽재우 공대98
△권도엽 공대72 △권영환 사대59
△권혁현 농대88 △김민정 사대08
△김민혁 공대02 △김복혜 문리61
△김상민 行院11 △김상진 사회96
△김성범 AMP14 △김성익 공대03
△김순진 생활74 △김영웅 생활03
△김영환 環院09 △김영희 법대85
△김재형 미대02 △김종길 ACAD18
△김진남 공대99 △김홍범 자연72
△노준석 공대99 △류장수 공대72
△류창승 經院11 △류호택 농대73
△리기태 AIP2 △문상진 공대75
△문종억 大院59 △문현식 공대07
△박계명 자연02 △박상철 법대96
△박성수 수의06 △박일현 공대01
△배무호 공대82 △변재철 자연88
△서중배 의대85 △송영준 법대07
△신국조 문리65 △신규호 사대05
△신민석 법대91 △신용실 사회80

△신인섭 농대75 △신호철 공대93
△안기홍 농대76 △안병근 치대62
△양수영 사대75 △유병권 공대61
△유재훈 의대42 △윤가영 경영03
△이경민 법대76 △이경희 사대78
△이대빛 간호04 △이명용 AMP77
△이서운 사회04 △이승룡 ACPM7
△이영배 농대61 △이우영 인문00
△이원규 공대69 △이일선 공대48
△이재호 GLP28 △이청룡 공대61
△임범준 ABP41 △임석순 ASP25
△임영순 생활85 △임재욱 사대78
△전미애 사회08 △전석교 AWAS1
△전영상 공대93 △전제열 環院03
△정동호 자연03 △정병기 농대52
△정성목 수의85 △정영상 농대68
△정재훈 사회96 △정지웅 사대58
△주원준 농대63 △천성대 공대66
△최종만 문리57 △최진현 농대64
△한명섭 AMP77 △한오수 의대63
△한재원 자연94 △현준섭 의대99
△홍성협 공대55

이 사

◆인문대 △김경일76 △김덕수83
△김병철76 △김성식84 △노성환82
△류규현91 △박종덕74 △손정현84
△오세구72 △유기홍77
◆사회대 △김기령75 △김찬동84
△김희원89 △노창현81 △안근배81
△이원백84 △이준우92 △임 철75
△조태형88 △조현진85 △최완근81
△홍승원82
◆자연대 △김성기77 △김철호74
△민영철74 △박윤경83 △양명룡74
△이상영75 △이영근69 △이용학74
△이종섭73 △임완중87 △전성준81
◆간호대 △곽윤희74 △남은숙75
△이순임75
◆경영대 △권기출72 △김종현94
△김준철83 △김홍준76 △박용환72
△박종완71 △서동규84 △성열우77
△안철환88 △이현철83 △조승호81
△최대봉88 △하형석87 △허승호79
◆공대 △강창렬79 △곽정석50
△구본현73 △김덕우81 △김덕재54
△김문경61 △김선복62 △김순영95
△김용범70 △김은영56 △김재익69
△김정선81 △김종술66 △김종열78
△김종환80 △김호수63 △남용민71
△문영기69 △박기현74 △박영복63
△부준홍74 △부장렬77 △서정만64
△심이택57 △안상록68 △안용수73
△양준모85 △유승준63 △윤조덕69
△이건우74 △이경재81 △이국노80
△이연주93 △이윤기78 △이종훈55
△이현식88 △정금영77 △정성민61
△정재영70 △주기태69 △차석주81
△한영철69 △허대기71 △홍성철87
△황규백93 △황규승64
◆농대 △강경하74 △강원봉77
△곽영철59 △권오진52 △김상호56
△김상환88 △김장섭84 △김진근71
△김훈동63 △남현석81 △명을재83
△목세균63 △민원동65 △박동호74
△박선현71 △박순흥85 △박찬구87
△박한수82 △서성원93 △성기홍82
△송기철74 △오영환71 △원종영62
△유부열66 △윤경섭65 △윤성원72
△윤여창53 △이건일60 △이우종81
△이원민75 △이창규73 △이학재83
△임진득74 △장세영67 △정연택83
△홍성표56
◆문리대 △구봉희62 △권민웅62
△권혁방65 △김상하45 △김찬근69
△김하진58 △노영식74 △문현석66
△박기덕70 △박하진67 △성민선64
△송대성69 △오병남59 △오종발68
△이상근55 △이상원71 △이영훈64
△이종환62 △정규수63 △정병일62
△정태철55 △조용직60 △최중기69
◆미대 △권영걸69 △김제응60
△김종선74 △이영진54 △장채일78

△조성애64 △한형석91
◆법대 △강현안74 △권동렬59
△권오윤56 △김 숙69 △김 훈85
△김석영51 △김석재88 △김신태57
△김윤성76 △김정근76 △김정학71
△김허남49 △박상일77 △박수복77
△박종태84 △박준서59 △박대석77
△박태훈66 △배성진89 △서복현76
△송진현71 △신영수70 △신정철52
△심우찬02 △우병우84 △윤경희65
△이교립73 △이동준59 △이승철81
△이재근82 △이재인93 △이현옥78
△장정우89 △전용학73 △차한성72
△피영현89 △황선태66
◆사대 △강경돈70 △김남훈73
△김승재71 △김종훈79 △김창선61
△김홍섭73 △노재영91 △민진호87
△박남기50 △박대영80 △박병익74
△박형준60 △서정선60 △신용래52
△신종호86 △오창훈83 △원혜영71
△유경근58 △이계현72 △이동호59
△이명희79 △이오봉61 △이정식72
△이호준60 △임길선83 △장종택55
△정광삼58 △정운궁71 △정인형65
△최돈형68 △최태상53 △한희숙82
◆상대 △김종호54 △김태겸70
△박병준51 △박상은55 △박성석61
△송병락59 △이남수62 △이용휘57
△이항철54 △장윤문65 △최기동70
◆생활대 △류국영84 △윤기숙68
◆수의대 △곽기종55 △김경환80
△김윤수74 △김창수64 △박영혜82
△오효성77 △이상만48 △임영철74
△장광호75
◆약대 △김기술71 △김영길61
△남승국70 △백성기59 △오성환60
△우제남69 △윤여표76 △윤효선53
△주승재86
◆음대 △강주령83 △김홍식73
△박정욱78 △송지윤84 △송태근65
△신정혜77 △이경미79 △이선이84
△이승현87 △이오규70 △이윤희68
△이종길85 △이준복68 △최성희80
△최영택74
◆의대 △김수경81 △박창학71
△백태진74 △유병철71 △유재란82
△이종석79 △장경만80 △정경태53
△정두용73 △정영덕70 △정주영84
△정필현82 △최혜령03 △한홍무56
△홍성출89
◆치대 △김기달74 △김명효75
△김형욱82 △송명욱86 △신정훈65
△양수정83 △양일수73 △양재희75
△오경훈71 △우원희73 △이영대70
△이재봉70 △이창우91 △장은식89
△주광섭73 △최영근81 △황의강61
◆대학원 △강우식83 △김경남84
△김상복88 △문재석80 △박동준80
△박명호76 △박응수81 △우은주78
△이범수85 △이병갑75
◆경대원 △이종렬88
◆교대원 △장석민70
◆보대원 △김덕성71 △김병환65
△김종오79 △최영아74
◆신대원 △김기도72 △안병찬71
◆행대원 △김선태90 △김영화68
△최강립90
◆AMP △김세래66 △김택동68
△사재훈74 △서상노73 △신명철8
△양성욱1 △왕기철42 △유재전31
△이경태31 △이병성2 △이상주70

yewon 에원결혼
소중한 첫 만남 영원한 행복
www.yewonwedding.co.kr
NAVER **에원결혼**

자녀 짝찾기
“이렇게 힘들줄이야”

‘에원결혼’ - 높은 성혼율을 자랑합니다

연인지간의 사랑, 사제지간의 사랑, 형제간의 우애 그리고 부모님의 자식사랑...
그중 가장 숭고하고 헌신적인 사랑은 모성애가 아닐까요?
실제 우리네 어머니처럼, 20년이 넘도록 사랑하는 사람들을만 맺어주는 일을
해온 김해숙(金海淑)원장.
본인의 자식을 대하는 마음으로 애정과 책임있는 결혼만을
성사시켜온 그녀의 이름엔 어미 모(母)자가 들어 있습니다.

초혼 · 만혼 · 재혼 · 전문직 전문

에원결혼전문회사
대표.(02)761-5700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4-12
고려빌딩 501호

인도네시아대사관
롯데캐슬 아이비
BUS 정류장
KBS 별관
셋강역
고려B/D 501호

△이정식13 △이정훈54 △이주현45
△정건택21 △정형택6 △최병석75
△한원규75

◆AIP △고순관47 △김원배19
△김인수10 △문규원10 △박한창17
△신현필13 △유영완17 △이두평8
△이용수22 △이정열46 △이충언14
△정방언48 △최원태26 △홍성철34
◆ACAD △권도중49 △김영길49
△서정만18 △신은우56 △신현대31
△안창돈76 △안희수11 △유현규74
△이관범20 △이상영40 △이종식73
△정민근62 △정재호76

◆ABP △박현철10
◆SGS △김권욱18 △김두철3
△송두영22 △이상포28 △황용연2
◆APC △강대가4 △김경수10
△양종대15 △정현종9
◆HPM △김은혜28 △김재중22
△박보경28 △배종성27 △선덕남4
△성치용4 △엄금량14 △이승열29
△조동순27 △주영진2

◆AMPP △엄재구6 △이경재6
△최종식6

◆AIC △김정구3 △남호연4
△서 훈28 △신철화22

◆AFB △이원기12 △허우형9
◆AMPFRI △김경호20 △김정훈1
△송희순20 △유승배20 △이병윤26
△이유인7

◆ACMP △남순우3 △이희복8
△임전수6

◆FIP △서덕화2 △이부일2
◆GLP △김종길19 △김태환27
△마명욱23 △박삼수24 △양재길5
△윤석호7 △이상복25 △이승구15
△이효승26 △이희명26 △장수연22
△허수진14

◆ANMP △엄옥봉1

◆SPARC △안상휘23 △이세형17
△이수원15 △최태균21

◆AFP △이동영9
◆ASP △이천식25 △조성목23
◆IFP △김광현5 △백종화2
△주복식3

◆BCP △김원부8

일 반

◆인문대 △강기훈90 △고병철06
△김세희00 △김신하89 △김왕철71
△김정주11 △김하늬05 △박영진08
△방문규81 △신강문92 △신원근86
△양혜진02 △오해영72 △윤희상08
△이광성93 △이동익98 △이정근03
△이주현99 △이현정08 △정용환92
△정윤광66 △조태환72 △주인규06
△황영준00

◆사회대 △곽봉수82 △권용발74
△권준성92 △김경원07 △김계수81
△김균영84 △김민선10 △김용숙76
△김원주01 △김창선84 △김철수72
△김현민00 △김현철83 △나은영90
△민명기06 △박상훈87 △박정환07
△박희대11 △배준호08 △안성진80
△양소은03 △윤민수04 △윤성식05
△이동원06 △이수경09 △이은정05
△임중희05 △임지영09 △장재민07
△정규익73 △정흥순92 △조 민90
△주명훈90 △진현정98 △차경민02
△최성욱86 △최영섭86 △최호승97

△한재연84

◆자연대 △고영미83 △김 훈10
△김민주11 △김상현05 △김승근86
△김영동85 △김영학81 △김용환74
△김주현02 △김진규78 △김혁주78
△노주현83 △박상현11 △박영조05
△박종환98 △박지용89 △박지훈98
△백인환10 △손정원78 △송재봉80
△신용익72 △신용일95 △심은영05
△오창률95 △유영만84 △유해경07
△윤진명10 △이상윤90 △이상휘03
△이성민10 △이승구79 △이예슬11
△이한이87 △장경우78 △전용호75
△조기혁08 △최나락98 △최선영99
△최윤경06 △최윤수70 △최태혁10
△최효영11 △홍지석98

◆간호대 △김옥련66 △남선화09
△류수미08 △박정호58 △방환란81
△채소라08 △황애영68

◆경영대 △권상호97 △김관수08
△김동석69 △김동화88 △김형태95
△류 열79 △박아란97 △박희수71
△오정규77 △우정원07 △윤민근10
△이나래06 △이상우76 △이충호00
△이형진07 △장성욱98 △장세연10
△최우혁06 △한상용07

◆공대 △강경민00 △강응순71
△강태갑59 △강현우07 △고성훈85
△곽병근61 △곽삼진52 △권 윤05
△권남석93 △권영하64 △권오동69
△권오웅74 △권하욱96 △김 영53
△김갑환73 △김기웅60 △김동규58
△김동순71 △김동원05 △김두현72
△김민철97 △김보균96 △김봉근08
△김상수66 △김용수79 △김인선65
△김인영72 △김일두06 △김일우70
△김일형75 △김재열09 △김재홍80
△김재환54 △김정근60 △김정웅60
△김정제61 △김종훈93 △김주호52
△김준학10 △김천주57 △김충섭65
△김충은99 △김택중56 △김학기50
△김학성85 △김해길50 △김형준76
△김홍엽57 △류홍열97 △마춘경54
△문주성08 △박광근02 △박선영09
△박영도69 △박용수67 △박용철55
△박원춘76 △박정우83 △박종식70
△박종태82 △박찬영76 △박청수09
△박혁준10 △박형호54 △배성준99
△배승환54 △백계현10 △백봉근50
△변문현53 △변세종93 △변수근57
△서병은58 △서승범09 △서인원52
△성용선65 △손세근74 △손순완08
△송영수01 △송완근53 △송희국55
△신경식49 △신원동85 △심혜원99
△안상규85 △안소담12 △안종린80
△양승훈05 △엄세나04 △연영소62
△오 훈95 △오익환56 △오재건61
△오재환84 △오창훈96 △오효석74
△우명제00 △원상현05 △원용민54
△원종호98 △유건환56 △유현준00
△윤엽선72 △윤영찬67 △윤용섭86
△윤정호69 △이갑훈82 △이경식78
△이광원69 △이광희91 △이기성53
△이기수09 △이민준79 △이병수57
△이선행57 △이성기03 △이승훈98
△이용재02 △이우현52 △이유진10
△이일환55 △이정호79 △이종국97
△이진호80 △이호원97 △임혜숙98
△장근홍96 △장원상00 △정동식72
△정병호05 △정상우00 △정우재06
△정원배59 △정위수02 △정윤희68

△정재길55 △정해결69 △정해철59
△조남철62 △조용재51 △조유근67
△조형래58 △주관정76 △차덕용07
△차승현08 △최관호57 △최영태70
△최정립53 △최진혁85 △최태규99
△하진수78 △하태광84 △한상연04
△한창희66 △한창호95 △홍중우53
△홍진채01 △홍진표64 △황종영69

◆농대 △강성민02 △강정일64
△고상훈88 △고영근78 △곽 현88
△구외석84 △권원중56 △권인규94
△김용규83 △김 현58 △김경성79
△김관우83 △김교홍52 △김명호70
△김성우03 △김익년61 △김영각49
△김영욱63 △김용하79 △김의도87
△김인기60 △김진배73 △김진태75
△김한수57 △김현성71 △김호일68
△김홍철78 △김희창61 △노재후60
△마종선82 △맹준하62 △문규해56
△민재훈77 △박금수78 △박봉현68
△박재형48 △박종문64 △배대환48
△배진호07 △변종훈54 △서훈희10
△석창건00 △손영민84 △송기종54
△송환창46 △신건성62 △신동현08
△신상혁53 △신영재74 △신혜영06
△안상남58 △안화섭60 △양국현96
△양기웅93 △양기태66 △오동환84
△오봉국45 △오윤진56 △오장환57
△오종환60 △우제국51 △원종태01
△유 솔09 △유근학55 △유병현61
△유준근86 △윤창원67 △윤희석66

△이광웅61 △이광현54 △이광희84
△이규형50 △이기동54 △이기창51
△이기호78 △이문화77 △이세연79
△이순남81 △이순혁59 △이양섭72
△이영호68 △이용남61 △이용준90
△이우룡98 △이윤환60 △이익수70
△이장환58 △이재경98 △이종섭57
△이종화51 △이중훈49 △이해문70
△이희진03 △인치종54 △임정선09
△장석환58 △장성종58 △전종갑72
△정민섭59 △정선자62 △정현섭53
△조비행58 △채정석78 △최균용74
△최동인75 △최연호74 △하창호02
△한성식58 △한재휘07 △한휘석57

◆문리대 △강신성65 △강신표55
△강영주63 △김 윤61 △김대전59
△김득수57 △김만옥59 △김무창61
△김병상65 △김봉영58 △김상철62
△김숙자52 △김영소66 △김영식64
△김윤수57 △김윤식55 △김종섭51
△김중수62 △김형배07 △김화중54
△박대영60 △박옥순59 △박의일61
△박종대60 △방형운58 △서연호57
△서지원70 △손수남68 △송병찬59
△신건호57 △신종성70 △안원태52
△오보환61 △원이숙54 △유광준70
△유희형60 △윤 선64 △윤병석52
△윤병태56 △윤영식54 △이건원63
△이광웅59 △이규호68 △이동남71
△이민우61 △이영주60 △이육재58
△이인수63 △이종명54 △이준기54

△이태녕46 △이효정71 △인오룡70
△인운섭57 △장내식65 △전광현57
△정양모54 △정용승58 △조희근71
△주순호51 △최인승58 △최창섭61
△최희승60 △추국엽62 △홍순호57
△홍승기65 △홍승호57

◆미대 △강태성49 △김민지01
△김지열56 △김지현10 △김지희59
△신화정89 △원묘희59 △윤현경86
△이다미95 △이운식56 △이혜인64
△임명욱81 △전영화49 △정정자60
△정평숙54 △진광산62 △최동신60
△최속경59

◆법대 △강재민07 △곽영욱68
△김 철83 △김규연61 △김기남02
△김기천59 △김다솜07 △김대영71
△김민영02 △김보섭81 △김선아00
△김성배73 △김승동72 △김승식52
△김영선55 △김원철66 △김윤상88
△김윤섭56 △김재하63 △김종국65
△김중수84 △김진홍57 △김현석71
△김호윤73 △김황식67 △리종훈64
△류택형49 △민동섭06 △박병희52
△박성규77 △박세철51 △박세현93
△박종성73 △박홍식55 △백형일58
△성창익88 △소철룡68 △심한준59
△여정규74 △염정훈49 △원의종55
△유상순76 △유효봉60 △윤용섭74
△이근윤76 △이상호85 △이석봉49
△이재덕82 △이재우81 △이재희57
△이종찬66 △이춘식52 △이태식57

“법률신문 창간 64주년을 축하합니다”

LOGOS
법무법인(유)로고스

고객의 ‘마중물’ 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펌프가
법률문제로 메 말라 있다면,
저희가 소중히 간직해온 마중물을
아낌없이 부어 시원한 물줄기가 샘솟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마중물’이란?
펌프에서 물이 잘 나오지 아닐때 물줄기를 끌어 올리기 위하여
위에서 붓는 물이란 뜻으로 순수한 우리말입니다.

법무법인(유) 로고스 본사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87길 36 (삼성동, 도심공향타워 8·14·16층) T. 02-2188-1000 F. 02-2188-1090
서초본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29길 10 (반포동, 백산빌딩 4층) T. 02-6203-1114 F. 02-6203-1115

문화예술지원사업센터 / 기업승계지원센터 / 경쟁법연구지원센터 / 기술이전사업화센터 / 사학경영지원센터 / 건설·부동산팀 / 고용·노동팀 / 공정거래팀 / 금융·자본
시장팀 / 기업인수합병(M&A)팀 / 문화·예술팀 / 방송정보통신·언론팀 / 보건복지·의료팀 / 보험·해상팀 / 사학경영·교육팀 / 에너지·플랜트·환경팀 /
엔터테인먼트·스포츠팀 / 외국인투자팀 / 재개발·재건축팀 / 조세팀 / 지식재산권팀 / 친족·상속팀 / 특수행사팀 / 해외사업팀 / 도산(화생·파산)팀 / 공익팀 / 선포팀

베트남 호치민 T. 84-8-3822-7161 / 베트남하노이 T. 84-4-3771-0334 / 중국 로고스·잉커 한중법률통상지원센터 T. 02-2188-1003

www.lawlogos.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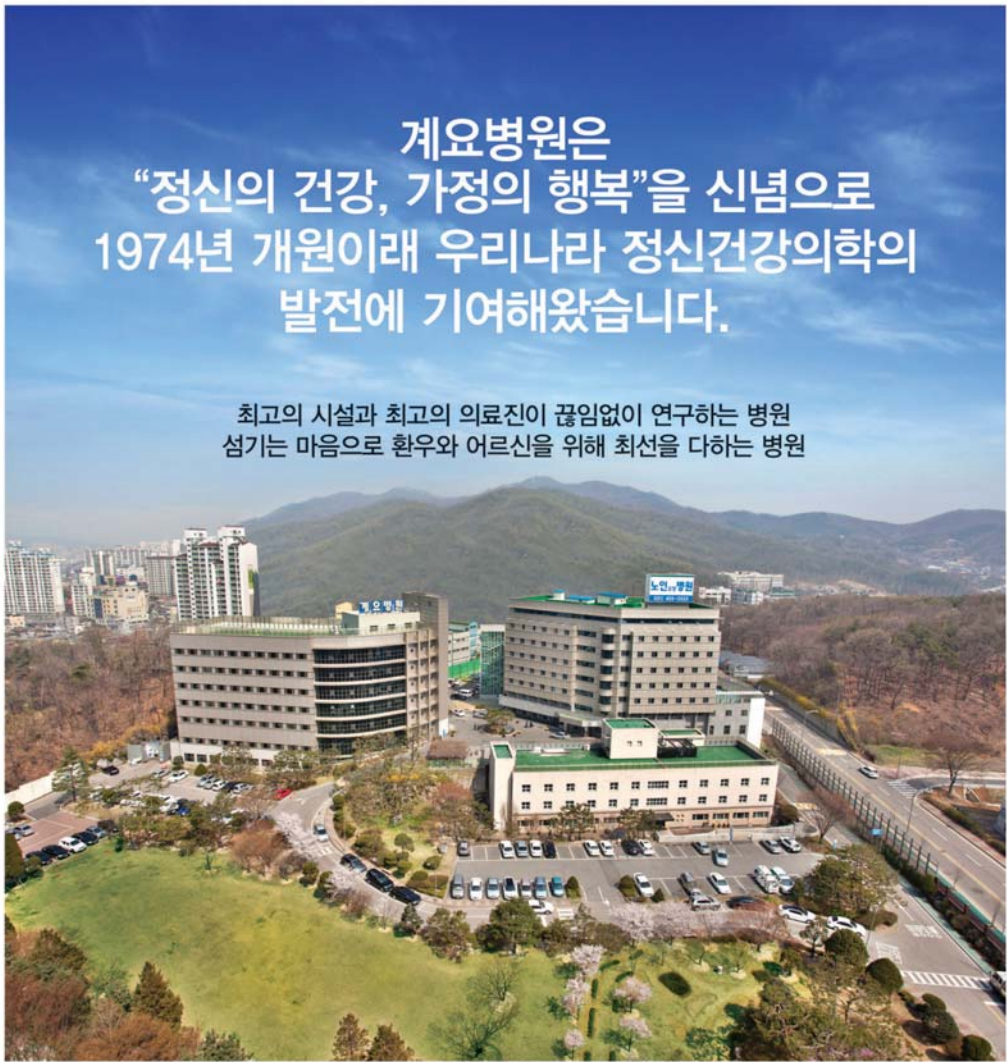
△이필관⁹⁰ △이학무⁵⁵ △이현수⁹²
△임승관⁷⁰ △임혜리⁰⁵ △전원배⁷²
△전주혜⁸⁵ △전하은⁷⁴ △정 철⁵⁹
△정기연⁰² △정다워¹⁰ △정영일⁷³
△정용재⁵⁷ △정원진⁸⁸ △정재훈⁹⁰
△조경래⁵¹ △조남현⁵⁴ △조현진⁰⁵
△주용완⁸⁹ △주진오⁹⁹ △최세윤⁰¹
△최원빈⁵³ △최은수⁷² △한경수⁷²
△한기일⁵⁸ △한영광⁶³ △현옥순⁵⁵
△홍성계⁶⁰ △황경진⁵² △황용식⁶³
◆사대 △강대길⁸⁷ △강신태⁷⁵
△강신호⁵⁵ △강호철⁶⁹ △고은별¹⁰
△고인수⁷⁹ △구도훈¹⁰ △권순용⁶¹
△권오현⁷¹ △김경렬⁵⁸ △김경수⁵⁹
△김갑섭⁷⁹ △김규호⁵⁵ △김길중⁴⁸
△김명자⁴⁵ △김부환⁷⁹ △김상철⁶⁸
△김선호⁷² △김세철⁷³ △김소연⁹⁴
△김수신⁶⁰ △김연자⁶¹ △김은숙⁵¹
△김재영⁵⁸ △김재철⁷¹ △김정희⁸⁴
△김진국⁶¹ △김필수⁵⁷ △김현수⁷²
△김홍우⁵⁸ △김희분⁵⁰ △나정운⁵⁸
△남유선⁰⁴ △노두호⁵¹ △문정대⁵³
△문정환⁵⁹ △박대규⁵⁷ △박동원⁵⁸
△박영덕⁴⁹ △박옥주⁵⁰ △박원선⁵⁸
△박유민⁰⁸ △박점남⁸³ △변희준⁵⁸
△서덕현⁶⁹ △서리화⁸⁶ △석종복⁷²
△석중현⁸⁴ △성현경⁰⁸ △손나철⁴⁹
△손수일⁴⁸ △손충익⁵⁶ △송대은¹⁰
△송선영⁰⁰ △송찬엽⁸⁰ △신미영⁷³
△신석환⁵⁷ △심상석⁵⁸ △양인환⁵²
△예원혜⁶¹ △오연옥⁰⁹ △오종식⁵⁷

△유봉호⁴⁸ △유우길⁶⁵ △유효숙⁵¹
△윤기승⁷² △윤기호⁰³ △윤병웅⁶⁴
△윤성수⁶⁴ △윤정희⁵⁴ △이방별⁶⁵
△이병주⁵³ △이상목⁵³ △이수안⁹⁸
△이수찬⁵⁶ △이언종⁰⁹ △이영윤⁵⁸
△이영자⁶⁰ △이예진¹⁰ △이원희⁶⁹
△이주찬⁶⁷ △이춘산⁹⁶ △이태준⁴⁸
△이현수⁵³ △이혜진⁹⁶ △인안숙⁵⁴
△전명수⁵¹ △전방근⁷⁷ △전쌍식⁸⁷
△정광석⁹⁴ △정광윤⁰⁸ △정기숙⁵⁵
△정동화⁵³ △정명진⁴⁷ △정성환⁹⁷
△정이든¹¹ △정차근⁶¹ △정현재⁰⁹
△정혜진⁹⁸ △제옥례³³ △조병완⁵³
△조선희⁵⁹ △지충성⁵⁷ △천석현⁵⁵
△최래옥⁶⁰ △최범선⁸⁶ △최수연⁶⁹
△최연수¹¹ △최영준⁶⁶ △최학준⁶⁰
△최흥기⁷³ △추건이⁵⁸ △하양희⁵⁷
△한 준⁷⁴ △한난수⁴⁵ △한재관⁰⁸
△하현도⁵² △홍학순⁵³
◆상대 △강웅식⁵⁸ △강화중⁶⁸
△권혁조⁵³ △권혁태⁴⁹ △김기현⁶¹
△김선정⁵⁴ △김성락⁴⁶ △김성주⁵⁵
△김윤하⁶³ △김종창⁵⁵ △김형철⁶⁹
△박기환⁶¹ △박화성⁵¹ △박희소⁶²
△배상전⁵⁷ △백문생⁶² △서강무⁵⁸
△손기혁⁵⁸ △송인구⁵⁹ △심문섭⁵⁴
△안병택⁷¹ △안홍지⁶¹ △엄치섭⁵³
△유춘상⁵⁴ △윤록현⁵⁹ △이동재⁵⁴
△이영일⁶³ △이영철⁶⁸ △이용기⁵⁷
△이정권⁵⁷ △이학갑⁶² △이해웅⁵⁵
△이호철⁵⁷ △정동수⁵⁸ △정덕화⁵⁶

△정종찬⁷¹ △정철우⁵⁷ △조관호⁵⁶
△조희원⁶⁴ △지영식⁵⁷ △탁승호⁶⁵
△한장식⁶⁰ △한철수⁶² △함택립⁵⁹
△홍용찬⁶⁴ △황정길⁶²
◆생활대 △김순오⁵⁵ △김연지⁰⁸
△김혜숙⁷² △남기숙⁵⁷ △명은숙⁸⁶
△박형운⁸³ △서은영⁸⁴ △양정숙⁰⁸
△육원진⁵⁷ △이승희⁷⁸ △이지수⁰⁰
△조창화⁹⁸ △최소연⁰⁹ △하세현⁸⁷
◆수의대 △강영훈⁸⁴ △김경휘⁵⁶
△김민영⁵⁰ △김석호⁵⁸ △김준삼⁵⁵
△김홍욱⁶⁴ △문규환⁸⁴ △문선장⁶⁵
△박선규⁶⁰ △박승도⁶⁶ △서광원⁸⁵
△서세일⁷⁶ △오남진⁶⁷ △이강훈⁵⁸
△이경환⁶⁰ △이성택⁶¹ △조병기⁸⁷
△최지희⁹⁷ △최홍렬⁶⁶ △허상영⁰⁹
◆약대 △고건일⁶⁰ △박만기⁵⁹
△박혜량⁰⁹ △배옥남⁹⁵ △엄정현⁹³
△유제안⁵⁷ △윤광수⁶⁹ △이상실⁵⁵
△이우영⁷¹ △이진희⁰² △이해빈⁵⁸
△임정은⁷⁶ △임현정⁶⁸ △정근배⁶¹
△정윤희⁹² △조혜숙⁵⁴ △채영주⁵²
△최흥관⁶⁹ △하성상⁵⁸ △황병자⁶¹
◆음대 △강신애⁹⁶ △강명숙⁵⁴
△김인제⁷⁴ △남은정⁹² △문용숙⁷⁵
△박수전⁶⁷ △원호선⁷⁴ △유효정⁰⁰
△이정현⁰⁰ △이종찬¹⁰ △임동창⁶¹
△장희순⁸⁹ △정상열⁸¹ △정은이⁸¹
△최승용⁷⁸ △홍명숙⁷⁴
◆의대 △강준희⁹⁹ △권영표⁴³
△권영현⁷⁴ △김 윤⁶² △김병학⁶⁸

△김영태⁶⁵ △김철규⁵⁸ △김형석⁰⁰
△라한도⁰⁷ △류정주¹⁰ △박용화⁵⁵
△서재성⁸⁸ △성낙응⁴⁴ △성민용¹⁰
△송경선⁰⁸ △신상만⁶¹ △안문성⁷⁸
△안영준⁸⁹ △유근식⁹⁰ △유상현¹⁰
△윤기욱¹¹ △윤세희⁶⁸ △은 용⁰⁹
△이근후⁷⁷ △이돈영⁴⁶ △이선용⁵⁶
△이정균⁵⁶ △이정훈⁰⁴ △이종석¹⁰
△이지혁⁹⁵ △이희발⁵⁹ △임경환⁰¹
△장이람⁰⁴ △전형경⁸⁸ △정용화⁵⁶
△정재현¹² △정택진⁰⁹ △주경란⁶⁹
△지창도⁰¹ △최완주⁷³
◆자유전공 △구보호¹⁰ △유영상⁰⁹
△조동우¹¹
◆치대 △강대준⁶² △구 영⁸⁰
△권일근⁵⁶ △김명수⁶⁶ △김민수⁵⁶
△김영수⁵⁷ △김영호⁵⁷ △김용철⁶³
△김익현⁷⁸ △김종배⁵⁸ △김현순⁷⁴
△김화봉⁷⁷ △남상범⁸³ △문장남⁵⁸
△박승오⁶² △박재용⁹⁸ △성철제⁶³
△양유경¹² △양준모⁷⁵ △윤명국⁵⁹
△은세원⁸¹ △이민선⁶⁶ △이상명⁶⁹
△이양구⁵⁷ △이인경⁸² △이종재⁸²
△이창엽⁸⁹ △이혜진⁹⁷ △정상훈⁷¹
△차병익⁶⁹ △최기정⁸⁹ △최승은⁶³
△최형화⁸⁵ △한광현⁶⁸ △한기완⁶⁷
△한보균⁶⁹
◆대학원 △구자전⁶⁴ △김상천⁸⁶
△박용희⁶² △박태용⁹⁵ △신범석⁸⁹
△윤도순⁸⁴ △이정길⁶³ △최전석⁷⁷
△함성일⁰² △허찬수⁷²
◆MBA △고인준¹¹ △오혜연¹¹
△황성민¹⁰
◆경대원 △손영수⁶⁸ △장대길⁶⁸
△조형규⁶⁷
◆교대원 △김범기⁷⁷ △김충기⁶⁴
△이상길⁷⁰
◆국대원 △박지훈⁰⁵ △원준희¹²
◆법대원 △양재현¹¹
◆보대원 △강성도⁸⁶ △강신아¹²
△박형언⁸⁷ △백기진⁰⁵ △선병관⁹⁸
△유은정¹² △한은숙⁰³
◆신대원 △송경섭⁷⁴ △이민희⁷³
◆행대원 △김동희¹⁰ △김용국⁷⁴
△김일무⁷⁵ △김호선⁰⁴ △문병향⁶⁷
△박근호¹³ △안우순¹² △정효성⁸²
△조경규⁸⁷ △최대용⁸⁵ △최봉기⁷⁷
△최성안⁸² △한일주⁶⁸ △박상진⁹⁴
◆AMP △강호정³⁸ △김장진⁷³
△김철우³¹ △김필수²⁵ △김홍식³¹
△박세영¹³ △박영수³³ △박재명¹⁸
△박종인⁴² △성낙현⁷⁷ △송준강³³
△유시종¹⁹ △윤태하³⁴ △이동우⁷¹
△이상택⁴⁰ △이석범³¹ △이성연⁴
△이순세²² △이창호³⁷ △이춘호⁴⁶
△이화일¹³ △정하덕²³ △주영연⁹
△홍기호⁴⁷ △홍완기⁷⁷ △홍종대⁴
△황규홍⁵⁷
◆AIP △강성권⁵⁰ △고귀선¹⁹
△공학선⁴⁴ △구민철⁵¹ △김효선⁵¹
△남원순⁵¹ △박기동⁵¹ △박종호⁹
△성필선³⁶ △신길웅¹⁰ △이명래¹⁹
△이상호⁸ △이천우¹³ △이태화¹⁶
△정영구³⁰ △함광남⁸ △홍강지³⁰
◆ACAD △김기봉⁵⁰ △김만기⁷
△김성만³⁹ △김재영⁴³ △박동근⁴¹
△박승희⁵⁰ △박용암⁴³ △박인수¹⁷
△변희준²⁰ △송근호³³ △유성훈³⁴
△이범진⁴⁸ △이정구²² △장준경²³
△정도정⁷¹ △조용안²⁹ △조현형³⁵
△지태욱²⁰ △최남진³⁴ △최동화²⁹

△최차규⁷⁰
◆ABP △김범식³¹ △김영화⁴²
△김종욱²⁹ △박인수¹⁷ △백형욱³⁶
△송기덕²³
◆SGS △김복식³⁰ △왕효석²⁷
△이강수³⁰
◆APC △강연수²⁰ △김연광¹¹
△김영복¹⁹ △류승현¹⁹ △박민배¹²
△안중식²⁰ △양동주¹⁵ △오인승²⁰
△이종국²⁰ △이종대²⁰ △이창우¹⁰
△임기하¹⁷ △임윤순¹⁹ △조영대¹⁰
△조의상¹⁶ △조희원¹⁴ △최재영¹⁷
◆CHCN △이서현⁵
◆HPM △구본세³² △권용준²⁷
△김능환³¹ △나병기²⁹ △박태화²⁰
△백명식³² △송선영³² △유래관³²
△윤진환³¹ △이병준²² △이용구³¹
△정해경³² △전필동²⁸ △정기화³²
△정준원⁹ △채상식¹⁷ △최현섭³²
△현대우¹ △홍의표⁹
◆AMPP △강용주¹⁵ △문병일¹⁵
△박천주¹⁵ △신종명¹⁵ △정영민¹²
◆AIC △김병근³⁷ △김순식³⁷
△김재현³⁶ △김흥연²² △이건수³⁵
△이수호²³ △임상선³¹ △임연주³⁷
△전 진⁵ △정재균² △최경하²
△황해은³⁷
◆AFB △김명중¹⁰ △박인수¹¹
△박철호¹⁴ △허 훈¹²
◆AMPFRI △김태균³¹ △남선희³¹
△문용기²⁸ △이우규²⁶ △정관희⁶
△하문정³⁰ △한정기¹ △황재웅⁷
◆FIP △박상기⁵
◆GLP △김병림²⁸ △김병휘²⁷
△김성훈¹⁸ △김영국⁶ △김윤태²²
△백종열²⁸ △서순권²⁸ △안종욱²⁸
△이혜연²⁸
◆ALP △강영선²⁰ △김정식²⁰
△안철상¹⁹ △여주호²⁰ △이방수²⁰
△이용식¹⁹ △이태근¹⁹ △정일석⁴
△정재흠¹² △황운구²⁰
◆SPARC △이환재⁶ △최평규⁴
◆AFP △김인근¹⁴ △김주원¹⁴
△신상문¹⁴ △황세희¹⁴
◆ASP △민경원²⁷ △박도규¹⁴
△박종진²⁷ △신화영²⁷ △유경혜²⁷
△정인원¹⁰ △정인상²⁷
◆IFP △강경태¹⁰ △권동엽¹¹
△김봉춘¹¹ △서지희¹¹ △손남숙¹¹
△유성민¹¹ △허운순¹¹
◆KFL △김성희¹³ △김은경¹³
△김진영¹³ △문광자¹³ △유재기¹⁶
△장정현¹² △정희원⁸ △천태일¹¹
△최승훈⁷ △황원희¹⁴
◆FNP △공재기⁵ △김상현³
△김은미² △노영수⁵ △송승현¹
△안영후⁴ △진용두³
◆AWASB △김기완¹ △김수원¹
△남상구¹ △노윤하¹ △석재수¹
△이기금¹



계요병원
정신질환클리닉
알코올 및 중독센터
재활치료센터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
의원시 정신보건센터

계요노인요양병원
노인성질환클리닉
치매센터
건강누리의왕시립노인요양원운영

www.keyo.co.kr



전공의 수련병원



산책로



노인요양원



경기도 의왕시 오전로 15(왕곡동)
TEL: 031-455-3331~8 FAX: 031-452-4110

2014년 11월	
연 회 비	37,270,000
평생회비	30,700,000
입 회 비	430,000
계	68,400,000
2014년 누계	1,180,674,484




2015
Happy Newyear



LOUIS CASTEL
PARIS

울산대교는 길이 8.38km인 세계 세 번째, 국내 최대 단경간 현수교로 2015년 5월 준공 개통 예정임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광역시
ULSAN METROPOLITAN CITY

대한민국의 미래, 울산에서 시작합니다

울산이 꿈꾸는 내일은

기술이 예술을, 산업이 환경을,

오늘의 번영이 내일의 사람을 향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울산에게 미래란

다가올 시간이 아니라 새로운 생각입니다

Think Tomorrow